



**ARTIST** ㄱ - ㄴ  
04 PAGE

강명규 강승지 강은진 권인경 김민주 김선영 김수연 김시우 김용식 김재하 김현민 김현정  
김호성 박경률 박선영 박소현 박제경 박종찬 박현정 방수연 배준현

**ARTIST** ㄷ - ㄹ  
25 PAGE

신현정 안강현 양시내 양재열 오세경 오세신 오순미 우정수 원서용 유의정 윤석원 이민정  
이소연 이슬기 이승아 이영희 이윤서 이은새 이정엽 이정형 이주리 이화평 임선구 임종욱

**ARTIST** ㅈ - ㅎ  
49 PAGE

장원호 장종완 전병구 전현선 정세원 정재영 조대원 조영철 조은주 최수진 최어령 최창재  
추미림 편아름 하지혜 홍기웅 홍재진 황정원

# 바람난 미술

〈바람난 미술〉은 미술이 일상과는 너무 멀고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시민들과 가까운 곳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바람으로 시작한 아트캠페인이다. 시민들에게는 일상 속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작가들에게는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며 전시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시민을 기다리는 미술이 아닌 시민을 찾아가는 미술을 추구하고자 2013년 1월 시민청 전시를 시작으로 지난 2년간 코엑스, 서울역사박물관, IFC몰, 송파구청, 서울시어린이병원, 서울의료원 등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찾아가는 전시를 개최했으며, 2015년에는 서울도서관을 시작으로 롯데백화점, 세운상가 등 새로운 공간으로 찾아갈 예정이다. 〈바람난 미술〉은 미술이 본래 삶 속에 존재 했듯이 사람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다가가고자 한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었던 미술? 이제 누구나 즐기고 누구나 소장할 수 있는 예술! 이 되길 기대한다.

## 2015년 연간 전시 일정

- 2015. 07. 21 ~ 08. 02 서울도서관, 1~4층 로비 및 계단
- 2015. 09. 19 ~ 09. 30 롯데백화점 본점, 러브릿지
- 2015. 10. 06 ~ 10. 15 율현초등학교
- 2015. 10. 19 ~ 10. 23 상현중학교
- 2015. 10. 29 ~ 11. 02 세운상가, 5층 광장
- 2015. 11. 17 ~ 11. 29 시민청, 지하 1층 시민플라자

※ 전시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와 예술을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설립된 서울시 문화예술 전문기관으로, “예술로 활기찬 서울, 문화로 행복한 시민”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예술지원 및 교육사업, 문화복지사업, 시민축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작품 구입 및 기타 문의

서울문화재단 공공예술센터 02-3290-7144  
www.sfac.or.kr  
www.facebook.com/artwindsfac

주최·주관  서울문화재단

협력 서울도서관 롯데백화점 율현초등학교 상현중학교 세운상가 시민청 서울메트로

재능기부 캘리그래퍼 강병인(로고디자인) 비안디자인 대표 안경두(전시프레임 디자인)

- 작가의 경력은 개인전, 단체전 각 5건의 전시(최근 년도순)만 게재하였습니다.
- 국내 전시의 경우 국가를 제외하고 전시장소, 지역만 표기하였습니다.
- 작품 설명은 작가노트를 일부 편집한 내용입니다.



작/ Now 2014 50 X 72 X 8cm, HD 영상, 2014

2,800,000원

우/ 천천히 보아야 아름다다(스틸컷) 57 X 50cm, 피그먼트 프린트, 2014

800,000원

## 강명규, b. 1976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양화학과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서양화학과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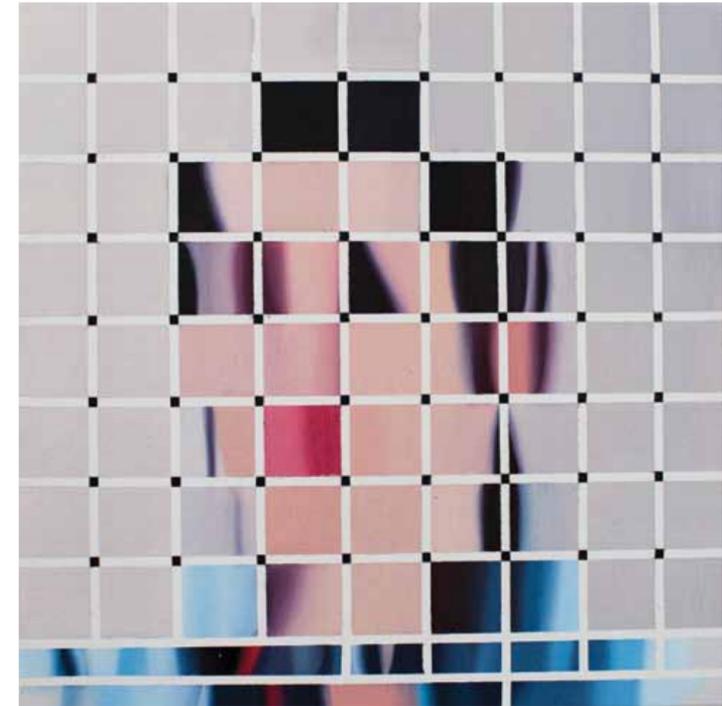
### 개인전

- 2014 행복해야 할 권리 (팔레트서울, 서울)
- 2010 People (인사아트센터, 서울)
- 2010 People+Drawing (신한PB센터, 서울)
- 2006 A Dreaming plant (관훈 갤러리, 서울)
- 2005 Aura (서라벌 갤러리, 안성)

### 단체전

- 2015 축복의 땅, 양평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 2015 100인 100작 (알뮤트1917 서울, 춘천 / 현대백화점 루비홀, 서울)
- 2012 CAYAF - 형형색색 오늘을 읽다 (킨텍스, 일산)
- 2012 영혼, 풍경 그 너머 (팔레트서울, 서울)
- 2012 동강 현대 작가 초대전 (영월문화예술회관, 영월)

물 안에서 풀어지는 안료들은 밑으로 내려가며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것은 서로 엉겨 붙거나 응집과 확산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좀 더 시간이 흐르면 안료가 만들어 냈던 다양한 모양 변화와 색은 물에 희석된다. 이러한 과정은 사물의 생성, 성장, 소멸을 단계별로 보여 주는데, 작업에서 필수 요소로써 사용한 물은 각 주체 간의 관계 맺음을 여는 장으로써 활용하였으나 그 존재 여부는 다른 매개체의 운동을 통해 헤아릴 수 있을 뿐이다. 아울러 작품에서 여백으로 남겨진 공간은 물질들의 미확정적 움직임, 그 가능성의 여지라 볼 수 있을 것이며 작업 환경만을 제공한 나는, 사물이 지닌 성질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관찰자라는 또 다른 타자로 역할을 바꾸어, 주체가 된 물질들의 확장성을 있는 그대로 보려 한다.



남자 32.7 X 32.7cm, 캔버스에 유채, 2014

550,000원

## 강승지, b. 1989

국민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회화전공 석사 졸업 예정  
국민대학교 미술학부 회화과 졸업

###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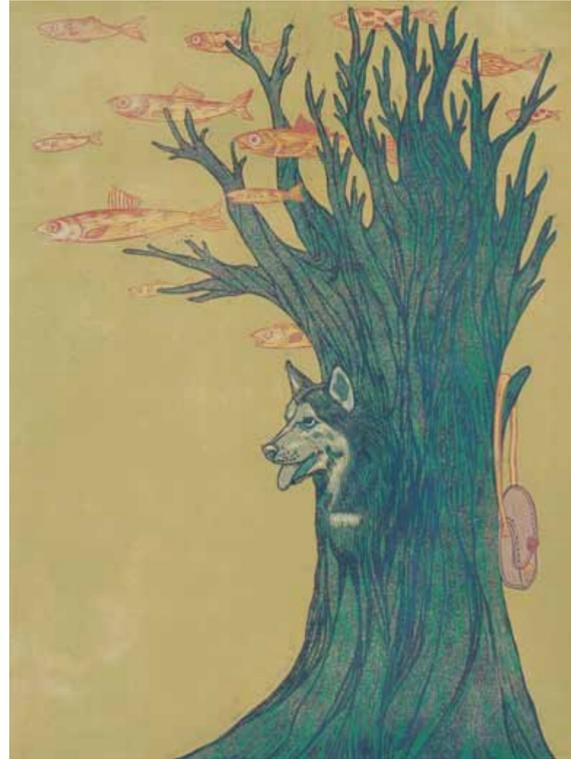
- 2014 Pixel Mapping (Hotel Manu Gallery, 서울)

### 단체전

- 2013 바람난 미술 (시청, 서울)
- 2013 작은 명작전 (롯데 갤러리, 서울)
- 2013 The Winter Show (성곡 미술관, 서울)
- 2012 동방의 요괴들 지역순회전 (MBC, 대구)
- 2012 동방의 요괴들 Best of Best전 (충무아트홀, 서울)

<Figure 시리즈>에서는 인간의 얼굴을 규정하는 개별적인 특징인 눈, 코, 입 등의 형상과 표정을 해체하고 이러한 요소를 불명확하게 나타냈다. 1년 전 컴퓨터로 '픽셀 리맵핑'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지의 기본 단위와 배열을 파괴하고 뒤섞어 놓아도 기존의 이미지 요소들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는지, 감상자들이 색과 추상 형태만으로 원래의 이미지를 유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하고 싶었다.

결과적으로 이 실험을 통해 얻게 된 사실은 이미지의 배열을 바꾸거나 기본적인 특징만 표현하더라도 기존 이미지가 무엇인지 유추하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배열이 뒤섞이면서 나온 추상적인 형태가 오히려 감상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것이다. 현대 회화에서는 대상에 대한 개별적 특색들을 최소화하고 서술적인 요소들을 배제함으로써 작품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극대화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 우화 2 80 X 60cm, 목판화, 2011

900,000원

## 강은진, b. 1979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판화과 석사 졸업  
경희대학교 도예과 졸업

### 개인전

- 2011 Personal Fable (갤러리 도스, 서울)
- 2011 (The K gallery, 서울)
- 2008 아트프로젝트 - Haunt you everyday (갤러리 진선, 서울)

### 단체전

- 2015 (카페 그레도 사랑해, 서울)
- 2014 Blanc Bleu Hotel Art Fair (Grand Ambassador Seoul, 서울)
- 2014 신감각전 (조선일보 미술관, 서울)
- 2014 The Woodcut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
- 2014 JIFF LOUNGE - Apic Exhibition (15회 전주국제영화제, 전주)

난 호기심 많은 한 소녀가 되어 꿈의 세계를 돌아다닌다. 일상의 대상들은 나와 함께 경쾌한 움직임으로 함께 어디론가 떠나고 그곳에 도착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꿈의 생명들을 만나게 된다.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의 삶을 관찰해본다. 그들의 시간을 스케치하고 판화라는 기법으로 예술적 아우라를 만들기 위해, 목판 소멸기법 (Reduction)과 문(門)이라는 소재로 판각 작업을 한다. 이러한 나의 작업 방식은 나의 꿈의 세계를 탐구하는 법과 비슷하다.

꿈의 세계로 들어 서기 위해서는 나의 삶 속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비워낸다. 이러한 버림과 비움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진정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진다. 신비한 세계로 들어서기 위해 꿈과 현실의 '통로/문'을 형상화한 작업은 그것을 열면 '안'에서 '밖'으로 통하는 문이 아니다. 현실 '안'에서 꿈 '안'으로 들어가는 개념으로 문을 열면 새로운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문을 열리는 그 시점에서 인식의 초월적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치유-창가에 선 사람 91 X 117cm, 한지에 고서풀라쥬, 수묵채색, 2012

2,000,000원

## 권인경, b. 1979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동양화 박사 졸업  
홍익대학교 일반 대학원 동양화 석사 졸업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미술학부 동양화 졸업

### 개인전

- 2013 Heart-Land (그림손 갤러리, 서울)
- 2013 L'ECHAPPEE BELLE (한국 문화원, 파리, 프랑스)
- 2011 도시-조망과 은거의 풍경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 2009 도시-순간의 지속 (갤러리 이즈, 서울)
- 2007 시간의 공존 (한전프라자갤러리, 서울)

### 단체전

- 2014 청년예술 100 (798 sz art center, 베이징, 중국)
- 2014 미술과 이상-현대미술, 이상을 담다.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서울)
- 2014 Place aux jeunes (갤러리 기움, 파리, 프랑스)
- 2013 서울 포커스-한국화의 반란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 2013 Round-up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집은 곧 내부 인간이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표본이 된다. 이는 세계의 질서가 압축된 곳이다. 바슐라르가 집을 '우리의 첫 번째 우주'라고 했듯 집은 인간의 최초 공간이며 세계인 동시에 우주다. 집은 인간이 뿌리내리고 있는 중심부이며 또한 회귀점이다. 우리는 이 공간에서 단순히 머무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주라는 직접 체험을 통해 공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간다. 생텍쥐페리는 『성채』에서 '사람들이 집에 살고 있다는 것, 사물이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는 그들이 사는 집의 의미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즉 인간의 본질은 공간과의 관계 맺기와 거주하기를 통해 규정된다. 본 인간의 공간은 지극히 사적이며 안전한 장소이다. 이는 일종의 '사가산수(私家山水)'이다. 즉 일련의 자화상 같은 것으로 나는 특정 공간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상황과 상상을 통해 또 다른 영역으로의 전환을 꾀한다. 매우 폐쇄적인 듯하지만, 경험을 바탕으로 그 안에서 상상의 공간이 창출되고 외부영역과의 관계 맺음 속에서 자아의 영역은 외부세계와 연결 고리를 찾게 된다.



사랑을 기다다 76 X 33 X 33cm, 도자, 2013

2,000,000원

김민주, b.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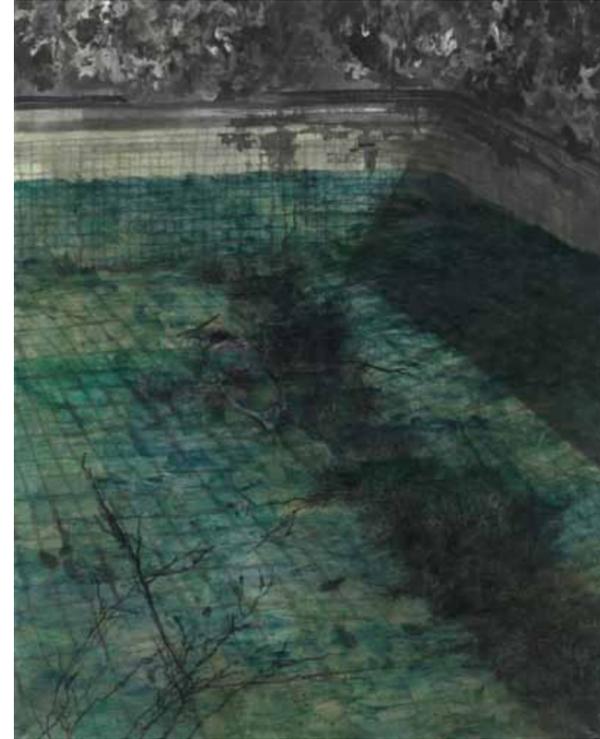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도예과 석사 수료  
홍익대학교 도예유리과 졸업

단체전

- 2015 (상암DMC, 서울)
- 2015 (스페이스 선, 서울)
- 2014 (롯데백화점 청량리 롯데갤러리, 서울)
- 2014 (정다방 갤러리, 서울)
- 2014 (갤러리토스트, 서울)

어릴 적부터 만화 속 주인공처럼 외모를 꾸미고 가꾸는데 깊은 관심을 보인 나는 자연스레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나 미의 기준, 그리고 여성성 등을 주제로 작업하게 되었다. 작품을 통해서 나를 포함한 많은 여성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끝없이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욕망을 담아낸다.

미의 여신 '비너스'는 현대사회의 기준으로 더 이상 아름다운 여성을 대표할 수 없으며 현대 여성들의 '워너비'도 될 수 없다. 그 자리는 비현실적으로 과장된 모습을 한 '마텔'사의 바비인형이 차지하고 있다. 나는 이처럼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변화되는 미의 기준과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을 비너스나 바비인형의 이미지를 차용해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변해가는 미의 기준에 맞추어 인위적으로 외모를 변화시키는 현대 여성에 대한 안타까움도 담겨있지만, 그 변해가는 기준에 맞추어 가는 나의 이야기도 담겨있다. 사람들이 꿈꾸는 비현실적이고 인위적인 그 모습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고, 내가 도달해야 할 '미의 이데아'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나의 자리 163 X 130cm, 정지에 채색, 2013

3,000,000원

김선영, b. 1984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학과 석사 졸업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졸업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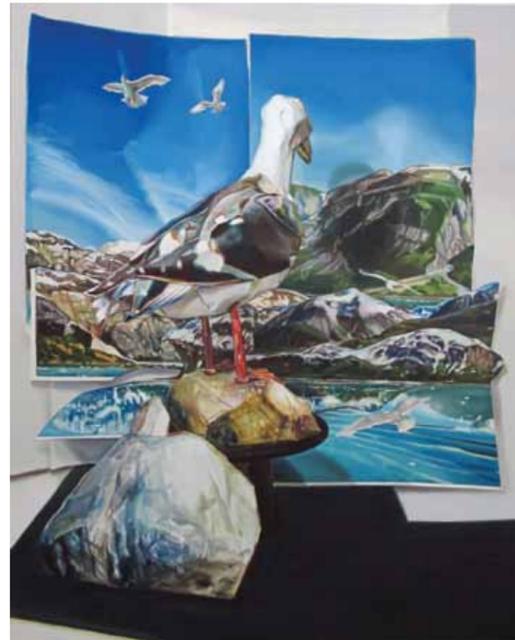
- 2014 달린 방 (갤러리 담, 서울)
- 2013 나의 자리 (갤러리 S101, 서울)

단체전

- 2015 이중교배 (아트포럼리, 부천)
- 2014 바람난 미술 (서울시청시민청, 서울)
- 2014 On Going (오픈스페이스배, 부산)
- 2014 탈회화적 캔버스 (성신여자대학교 가온갤러리, 서울)
- 2013 유진상가 Happy Years (유진상가&DMC홍보관, 서울)

나는 그림을 통해 한 인간이 가지는 두 가지 지위,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만의 '자리'로 표현한다. 그리고 그 간극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지금 나의 시선에서 그리려고 노력한다. 그림을 그리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내가 느끼는 사회적 '나'와 개인으로서의 '나'의 간극을 통해, 이 시대의 젊은이의 시선을 보여주려 한다. 다분히 자전적으로 표현되는 나의 그림은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괴리감 등을 통해 철저히 서른 살의 김선영, 그림을 그리는 김선영이 느끼는 막막함, 불안함 등의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표현된다. 나는 이렇게 서로 치환 되지 못하는 감정, 나를 투영해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들로 인해 생기는 오해들, 큰 불화, 싸움이 아닌 잦은 오해와 얽은 이해로 대상을 규정해버리려는 행동들 속에서 생기는 아무곳에도 속하지않는 감정을 그린다.

〈나의 자리〉는 목적성을 잃은 공간(폐수영장)과 목적성을 잃은 인간이 동일시되는 모습을 통해서 현실과 이상의 간극에 대해 말한다. 특히 현실과 현실로부터의 도피의 공간을 '물'이라는 매개로 나누고, 도피의 공간 속에서 외부의 시선을 차단시켜, 외부에서 기인하는 불안을 봉쇄하려는 모습을 통해 불안한 청춘의 감성을 표현했다.



작/ Great tit.32 50 X 50cm, 캔버스에 유채, 2014  
우/ Gull.47 100 X 80.3cm, 캔버스에 유채, 2013

1,000,000원  
2,000,000원

김수연, b. 1986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전공 석사 수료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회화전공 졸업

개인전

- 2014 Greenhouse (갤러리현대 원도우갤러리, 서울)
- 2013 Shadow Box (갤러리2, 서울)

단체전

- 2015 살찌는 전시 Get Fat Project (공간291, 서울)
- 2015 직업예술, MISSION ON 페인터 김수연 x 식물연구원 한지수 (구탁소, 서울)
- 2015 주목할 만한 시선 Un Certain Regard (금호미술관, 서울)
- 2014 TOMORROW 2014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서울)
- 2014 시간의 향기 Duft der Zeit (금호미술관, 서울)

나는 마주하고 싶지만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풍경을 만든다. 평면적인 실제 이미지(사진)를 활용하여 입체적인 오브제와 공간을 만들고, 그것을 다시 평면(회화)으로 옮기는 매체의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중첩된 가상의 풍경이 탄생한다.

사람들로부터 수집한 사진을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보는 방식으로 편집해보면서 작업이 시작되었다. 사진을 오려 붙여 만든 오브제는 페인팅 작업 이전의 드로잉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삼차원의 사진 오브제는 실재를 재현하는 허구의 대상이자 물질성을 지닌 또 다른 실재가 되며, 동시에 나의 회화 속 가상의 정물로 등장한다.

재구성된 풍경은 동전의 양면처럼 대상의 부재로 발생하는 상실감과 함께 잃어버린 대상을 직면하고 싶은 요구를 동시에 반영한다. 그 지점에는 다양한 시공간의 층위들이 집적되어 있으며, 가상과 실재를 오갈 수 있는 미완의 이미지가 무수히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다.



Many Me 50 X 65cm, 캔버스위 아크릴, 2013

1,000,000원

김시우, b. 1981

센트럴세인트마틴(Central Saint Martin) 패션크리에이티브디자인 수료  
국립창원대학교 의류학과 졸업

개인전

- 2014 (Morta retto & Galleria 999, 페르모, 이탈리아)
- 2013 (이리 갤러리카페, 서울)
- 2013 (까페바인, 서울)

단체전

- 2015 붓다아트페스티벌 (SETEC, 서울)
- 2014 (시민청, 서울)
- 2014 (모인화랑, 서울)
- 2014 (갤러리 엠, 서울)
- 2014 (경민현대미술관, 의정부)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의류라는 매개물을 통해 숨어들어 가는 각 개인의 복합적 감정, 혹은 자아(ego)를 반영하는 오브제의 시각화, 또한 지극히 주관적 관점에서 본 객관적 표현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대인이자 동시대인인 모던 노마드로서 한시적이고도 장기적인 생활자이자 관찰자로서의 관점으로 일상에서 가깝고 익숙하지만, 쉬이 여겼던 숨은 형상들을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마주하고 발견하고자 한다.

보여지는 것과 감춰지는 것의 경계, 입고 있는 모양새로 짐작되는 개인의 캐릭터성을 인물 없는 초상으로 묘사하는 것, 뭉쳐진 옷더미에 숨기고 싶거나 가려진 개인의 감성과 마주하는 지점을 찾는 것, 일상의 찰나적 순간을 건드려보는 것 등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은 마치 숨바꼭질처럼 숨겨놓고 찾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겉을 통해서 안을 들여다보듯이 존재의 증명을 이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을 통해 재확인하고자 함이 아닐까 한다.



Space Metaphor - 숲에서 91 X 91cm, 캔버스에 아크릴, 2015

1,800,000원

김용식, b. 1989

상명대학교 조형예술학과 서양화전공 졸업

단체전

- 2015 우수출업작품전 (동덕아트갤러리, 서울)
- 2014 ASYAAF (문화역서울 284, 서울)
- 2014 바람난 미술 (시민청, 서울)
- 2014 바람난 미술 (영등포구청, 서울)
- 2014 Serendipity (서울 리마치과, 서울)

작품은 곧 작가 자신의 모습이라 하다면, 지금까지 나를 되돌아보며 궁극적으로 온전한 자신의 개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일상에서 겪었던 '그날'의 '그 독백(The monologue)', 아픔과 비애, 허무하고 비관적으로 보게 된 '그 풍경'의 모습을 그림으로 은유한다.

그림이 구상적으로 보이는 듯하지만 내 그림은 구상회화가 아니다. 물감을 흘리거나 튀기거나, 혹은 긁고, 바닥에 그림을 펼쳐 물감을 뿌리는 추상적인 요소가 모여서 하나의 그림을, 정확하게는 하나의 감정을 기록한다. 재조합된 풍경은, 이미 현실의 풍경이 아니다. 감각과 감정에 의존한 표현주의적 감성을 지닌 그림이다. 또 이러한 표현주의적 감성은, 한 시대에만 반짝이는 미술사가 아니라 인간의 실존적 감성이기 때문에, 이 생명력은 무한하다고 생각한다.



미스터.고 18 X 11 X 23cm, 수지, 철, 2014

300,000원

김재하, b. 1990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환경조각학과 석사 재학  
경기대학교 예술대학 환경조각학과 졸업

단체전

- 2015 북한강을 바라보며 (서호 미술관, 남양주)
- 2015 신진작가 (경기대학교 박물관, 수원)
- 2015 Choise\_형상 (경기대학교 박물관, 수원)
- 2015 경기대학교 동문전 (경기대학교 박물관, 수원)
- 2014 경기대학교 환경조각학과 (호연관갤러리, 수원)

나는 호기심과 궁금증이 많다. 무엇인가를 보면 "아! 그때 그랬다면? 저랬다면?"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왜?"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게 습관이 됐다. 반항적으로 보인다가, 버릇없어 보인다는 등 여러 소리도 들지만 난 정말 사소하게 궁금해서 그런 것이다.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 그로 인해 나의 머릿속에 생기는 현상들을 흠으로 작업도 하고 망치질, 용접 등 직접 맘을 흘리며 차근차근 내 눈에 직접 보이게 만들어보며 보람과 희열을 느낀다. 물론 정말 힘든 과정이다. 많은 체력과 테크닉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계획과 재료의 선택 등 과정은 힘들지만, 전혀 지치지 않고 작업을 하게 된다. 작업하는 동안 만큼은 난 하나의 창조주가 된다.



반복속달 80 X 80 X 20cm, 철, 2014

500,000원

김현민, b. 1986

경기대학교 대학원 환경조각과 석사 수료  
경기대학교 미술대학 환경조각과 졸업

개인전

2012 Oxygen Welding (대안공간 눈, 수원)

단체전

- 2014 카오스 속에 핀 코스모스 (수원화성박물관, 수원)
- 2014 난기류 (북수원 도서관, 수원)
- 2013 DMZ를 말하다 (두타연 잔디광장, 양구)
- 2013 Identity (수원 미술전시관, 수원)
- 2012 Irony (인사 갤러리, 서울)

하나하나 수를 놓듯이 용접물을 불규칙하게 배열하며 정신집중을 한다. 불규칙한 용접 자국들이 어지럽게 자리를 찾아가고 그들만의 질서를 잡는다. 그 모습이 썩 마음에 들어 가 만히 들여다보기도 하고 자꾸자꾸 닦아내기도 한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내가 하는 행위들이 결코 뜻대로 되지 않고, 타인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힘들다는 점을 느끼곤 한다. 많은 예술가가 하는 행동들이 순간적으로는 마치 효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의미 없는 행위로 끝나거나, 이런저런 조인과 질문들을 쏟아내지만 결국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듯 어떠한 뚜렷한 목적이나 분명한 반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엇인가 만들어 내는 것은 내가 아직 미숙하기 때문이라는 위로가 바탕에 있다. 반복해서 두들기고 잘라내고 붙이는 작업들은 아직 미숙한 나를 속달을 통해 미숙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좌/ 어떤 날 65 X 95cm, 종이에 목탄, 2012

1,600,000원

우/ 굿바이 스트레인지 53 X 45.5cm, 캔버스에 유화, 2013

1,000,000원

김현정, b. 1982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졸업  
덕성여자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 2014 (갤러리 잔다리, 서울)
- 2013 (메이크샵아트스페이스, 파주)
- 2012 (갤러리현대 16번지갤러리, 서울)
- 2009 (갤러리현대 원도우갤러리, 서울)
- 2009 (갤러리175, 서울)

단체전

- 2015 (이화익갤러리, 서울)
- 2015 (갤러리 잔다리, 서울)
- 2013 (금호미술관, 서울)
- 2013 (갤러리버튼, 서울)
- 2013 (이음책방 갤러리, 서울)

넓은 의미에서 풍경은 나를 둘러싼 환경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시지각을 의미한다. 수많은 정보와 이미지 속에서 나는 종종 꿈과 가상과 현실이 혼동되는 것을 느낀다. 그럴 때면 눈 앞의 현실은 더욱 낯설게 보인다. 그런 낯선 마주침 속에서 나는 어떠한 사건도 없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보통의 풍경을 선택하는데, 그 평범함이 감각에의 물입으로 보다 더 생생한 묘한 분위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나는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디테일들을 발견하고, 질감을 상상하고, 물질감을 만들기 위해 색과 붓질을 쌓는 구축적인 행위를 반복한다. 내가 대상의 감각을 집요하게 파고들 때에, 기억 속의 그 장면이 실제적인 것으로 재현될수록 그 허구성도 더욱 강해진다. 그것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점에서 내가 이해하는 삶에 대한 인식과 닮아있다. 나는 그런 삶의 허구성과 표현 불가능성 때문에 회화가 가능하다는 전제를 믿는다. 도무지 닿을 수 없는 시도들이 그림이 되어서 세계를 순수하고 섬세하게 복합적으로 관찰하는 태도를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란다.



N1412 100 X 150cm, 피그먼트 프린트, 2014

3,000,000원

김호성, b. 1984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사진학과 석사 졸업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졸업

개인전

- 2015 (갤러리 인덱스, 서울)
- 2015 (스칼라티움 아트스페이스, 서울)
- 2014 (유성아트 갤러리, 안양)
- 2012 (삼각케이스, 안양)
- 2012 (갤러리 이룸, 서울)

단체전

- 2014 블랙마켓 석수시장 (안양)
- 2014 제6회 에로티시즘 미술대전 (제주 건강과 성 박물관, 제주)
- 2014 아트쇼 부산 2014 (BEXCO, 부산)
- 2014 U-Street 미디어아트전 (미디어폴, 서울)
- 2013 말, 사람 그리고 치유 (말 박물관, 과천)

사진은 늘 “그때 그곳에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그때 그곳에 있지 않았다. 미디어의 발달은 서울에서 뉴욕의 거리를 확보하는 체험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나는 Google Earth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거리뷰(Street View)기능을 활용해서 뉴욕을 마음껏 누비며 이미지를 캡처하였다. 실제로 여행하면서 사진을 찍는 것처럼 원하는 장면을 찾아 앵글과 프레이밍을 통해 나만의 뉴욕 사진을 만들어 냈다. 나는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뉴욕을 표현할 수 있고, 몇 달 전 뉴욕의 이미지가 내게는 현재 상황으로 재구성되었다. 나의 뉴욕사진은 현장성이 약화됨으로써 오히려 도시의 감춰진 얼굴을 더 도드라지게 드러낼 수 있었다. 타인과 어우러지지 못하고 도시와 걷도는, 어디선가 록 튀어나온 듯한 사진 속 도시인들은 고독하고 서로 무관심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같은 거리를 어깨를 스치며 지나기도 하고 군중 속에 함께 서 있기도 하지만 그들은 저마다 개별적이고 혼자다.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뉴욕을 바라보는 나나 뉴욕이라는 같은 공간에 있는 그들이나 외롭기는 마찬가지로 동질감을 느낀다.



좌/ 연약한 드로잉 295 100 X 75cm, 테라지에 혼합재료, 2012

1,800,000원

우/ 연약한 드로잉 299 75 X 40cm, 테라지에 혼합재료, 2012

1,500,000원

박경률, b. 1979

홍익대학교 회화과 대학원 석사 졸업  
홍익대학교 회화과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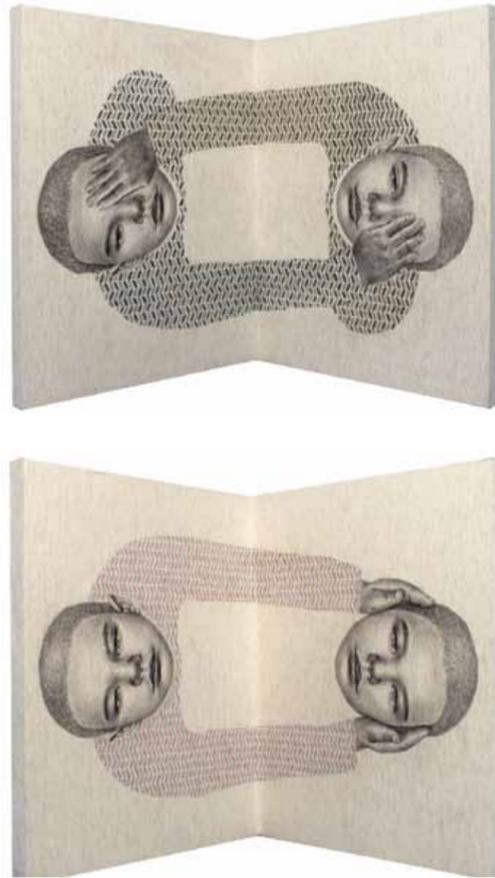
개인전

- 2014 2013고합404 (커먼센터, 서울)
- 2013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서울)
- 2011 Floating B (Salon de H, 서울)
- 2011 아버지의 세계 (갤러리현대 윈도우, 서울)
- 2009 마침표로 시작하는 문장 (loft-H 청담, 서울)

단체전

- 2015 보기 위해 눈을 사용한 일 (두산갤러리, 서울)
- 2015 중구난방 (자하미술관, 서울)
- 2014 오늘의 살롱 (커먼센터, 서울)
- 2014 Use Your Illusion (space K 대구, 대구)
- 2014 Sugar Apple Daegu (EXCO, 대구)

나는 경험을 통해 누적된 적응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다. 나에게 기록이란 일종의 '말 걸기'로서 일상의 숨겨진 경로를 찾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먼저 낮설고 새롭게 만나게 되는 대상에 나만의 고유한-친절한 이름을 붙이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것은 일종의 증얼거림으로 여기서 말하는 '증얼거림'이란 기록의 과정 즉, 녹취나 글로 남겨지거나 혹은 그리기 행위 과정에서 응얼거리는 어떤 단편적인 사건을 가로지르는 상황설명 같은 것이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하나의 사물에서 시작하여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개연성 없는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처럼 서로 이질적이면서도 보완적이고, 끊어질 듯 서로 이어지면서 하나의 내러티브를 형성해 간다. 본래의 사물에 새로운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은 강요된 이해가 아닌 적응을 위한 첫 번째 행위가 되는데, 타자로서 바라보아야 했던 그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상/ 자기방어4 45.5 X 75.8cm, 광목에 혼합재료, 2013  
하/ 자기방어1 45.5 X 75.8cm, 광목에 혼합재료, 2013

1,300,000원  
1,300,000원

박선영, b. 1992

홍익대학교 회화과 재학

단체전

- 2015 작은예술지원사업 선정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 2014 2014 아시아프 2부 (문화역서울 284, 서울)
- 2014 코드16 (팔레 드 서울, 서울)
- 2013 회화과 오픈스튜디오 (홍익대학교, 서울)
- 2013 가기전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들은 많은 일들을 생산해 낸다. 그 가운데 개인의 갈등과 소외와 같은 감정들은 적지 않게 존재하게 된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결핍된 사회에서 개인의 내면은 자꾸만 경직되고, 나를 포함한 타인에게 향하는 시선은 점점 거두어 단절된 개인 공간에 묻혀있게 된다. 시선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도착적 감각이다. 망실되었던 우리 시선이 머무는 곳, 그곳에 투영된 무언가를 그린다. 시선을 마주함으로써 그동안 대상을 향해 갈망했던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나와 우리가 관조했던 그리고 망각했던 것들을 가시화한다. 시선을 매개로 서로를 향해 뻗어있는 팔은 양쪽 대상에게 매여있는 귀속된 관계성을 의미하고, 각 인물들을 주체화시켜 마주한 대상에게 담긴 상호 관계를 구현한다. 양 화면의 마주 보도록 형성된 작은 대상들의 시선을 마주하게 하고, 시선의 도착점을 전달하는 일종의 대화를 돕는 격이다.



After the Interview-Madness 54.0 X 78.5cm, 혼합재료, 2014

900,000원

박소현, b. 1987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SAIC)

개인전

- 2015 The Globe (소금포 갤러리, 울산)

단체전

- 2014 Haute Couture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
- 2011 아시아프 (홍익대학교, 서울)
- 2011 The Trashion Show 2011 (Indiana Welcome Center, 해먼드, 미국)
- 2011 ECHOS (Centre Pompidou, 파리, 프랑스)
- 2011 Fashion 2011 (Millennium Park, SAIC, 시카고, 미국)

10대 중반에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20대 중반에 다시 돌아왔을 때 문득 한국인이지만 한국인답지 않은 나 자신을 발견했다. 한국에 정착하는 동안 이방인스러움을 지울 수 없었고 이러한 불편한 생각을 음식이란 소재와 버무려 자아정체성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낯선 곳에 적응할 때마다 그 나라 고유문화를 체험하게 되는데 먹거리에 관심과 호기심이 많은 나는 음식문화를 통해 그 장소와 사람들을 파악하는 습관이 생겼다. 자아정체성에 대한 탐구와 더불어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음식에 감정을 이입하여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After the Interview> 시리즈 같은 경우, 몇 년 전 어느 한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떨어졌던 경험을 반영했다. 주꾸미 볶음요리를 그리며 면접 과정 속에서 느꼈던 맵고 치열한 감정들을 표출하려 하였다. 탈락의 결과를 통보받고 마음을 추스르려 했던 감정들을 떠올리며 볶음밥을 그렸다. 주꾸미 볶음요리의 매운맛으로 식사를 시작하여 볶음밥으로 매운맛을 완화시키며 식사를 마무리하듯 그렇게 작업하는 동안 뒤엎었던 내 감정들이 나름대로 정리가 되었다.



유토피아14018 33.4 X 24.2cm, 캔버스 위에 아크릴과 구타, 2014

400,000원

## 박제경, b. 1979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화전공 석사 졸업

### 개인전

- 2015 《갤러리 비컷, 서울》
- 2015 《로남 갤러리, 서울》
- 2014 《삼청갤러리, 서울》
- 2014 《갤러리 이즈, 서울》
- 2014 유중 Wall Project (카페 드 유중 본점, 서울)

### 단체전

- 2015 감각하는 사유 2015 봄 (남산 갤러리, 서울)
- 2015 갤러리 이템 개관 기념전 (갤러리 이템, 서울)
- 2015 꿈과 마주치다 (갤러리 일호, 서울)
- 2015 이즈의 봄전 (갤러리 이즈, 서울)
- 2015 Line 線 (최정아갤러리, 서울)

나는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을 캔버스에 자연스럽게 옮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연상하는 것을 즉흥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나는 대상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사실주의 작업에서는 시간적 한계를 가졌다. 생각하는 것을 바로 그려나가려는 작업 방향은 사실주의 적 표현방식에서 선묘로 표현하게 되었고, 이는 레이스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선의 반복된 겹침은 캔버스의 면을 다 채우지 못하고 겹쳐도 안이 보인다. 선은 생각하는 것을 정밀하고 유연하게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레이스선의 재발견은 본인에게 작업과제와 함께 작업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었다. 가느다란 선에서 상상적이며 직관적인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나의 작품 <유토피아(U-Topos)>의 '유토피아(Utopia)'적인 이미지를 상상적으로 표현하며 이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고갈되어가는 마음속의 유토피아와 인간의 꿈을 찾고자 한다.



음암로 672 72.7 X 116.8cm, 캔버스에 유화, 2012

1,100,000원

## 박종찬, b. 1987

군산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디자인학과 수료  
군산대학교 예술대학 현대회화전공 졸업

### 개인전

- 2015 낭만짓기 : Romantic Build (복합문화공간 예무, 서울)

### 단체전

- 2015 Salon 전 (우진문화공간, 전주)
- 2014 유구에서 조금은 편안하게 전 및 오픈스튜디오 (공주)
- 2014 유구 중앙1길 및 시장길일대 (스튜디오, 공주)
- 2014 쉽게 말하자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
- 2014 아시아프 (문화역서울 284, 서울)

경쟁적 삶의 현실에서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낭만이나 즐기는 길치는 도태되기 마련이며,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잘 가야 한다. 하지만 이건 너무 괴로운 현실이다. 일상의 현실에서 이상, 낭만 이런 것들은 쓸모없는 것일 테지만 또 다른 현실에서 이것들은 매우 필요한 것일 것이다. 이번 나의 작업은 강요된 일반과 종속적 기능들이 아닌 쓸모없는/쓸모있는 것들에 관한 것이다. 어떤 일이 꼭 메뉴얼대로 수행된다거나, 외적 포만함을 느끼는 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치와 의미를 가질 것이다. 내 작업은 강요된 일반 안에서 쓸모 없이 위치 지어진 집의 위치를 내 나름의 잣대로 다시 뒤섞는 것과 같은 것들이다. 내 선생님은 내가 0을 만들겠다 했더니, '0이 뺀 게 되기도 하지'라고 하셨으니, 어쩌면 0을 만드는 일이 포만감을 만드는 일이 될 때도 있을지 모른다. 결국, 강요된 일반과 종속된 기능 안에서 쓸모없음으로 위치 지어진 것들도 '모종의 다른 현실' 앞에선 다른 위치를 가질 것이다. 대상의 위치 짓기는 정해진 메뉴얼이 아닌 각자의 방식으로 헤매다 보면 맞춤형 메뉴얼이 만들어질 수도, 비 평균의 새로운 길을 생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좌/ 이미지 (21) 30.5 X 45.5cm, 종이에 펜, 아크릴, 수채, 2013  
우/ 이미지 (23) 30.5 X 45.5cm, 종이에 펜, 아크릴, 에나멜,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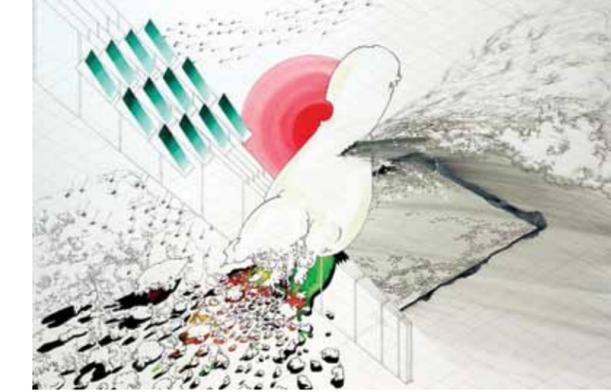
400,000원  
400,000원

박현정, b. 1986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석사 졸업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단체전

- 2015 맥거핀: 대리인의 눈 (과학기술대학교 갤러리, 서울)
- 2014 오늘의 살롱 (커먼센터, 서울)
- 2013 다방회동 (갤러리 정다방 프로젝트, 서울)
- 2012 Seize(re)seize (HoMA, 서울)
- 2011 GPS (홍익대학교 미술관, 서울)



종이의 한 지점에서 시작한 선들은 점차 증식하는 유기체처럼 흰 덩어리가 된다. 구름 같기도 하고 흐물거리는 액체 같기도 한 덩어리들이 화면의 중앙에 자리를 잡으면 그것에 반(反)하는 색면과 기하학적인 패턴이 대립하듯 나타난다. 이처럼 상반된 두 속성이 한 화면에서 대립하는 풍경은 (Image) 연작에서 반복된다.

실제로 곰팡이, 이끼, 암세포, 야산을 뒤덮는 덩쿨식물,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남조류 등 단순하게 프로그래밍 된 개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하는 속성을 참조하였다. 그것들은 양이 적을 때는 별 볼 일 없지만, 적당한 상황이 갖추어지면 거듭제곱으로 증식해서 금세 제어할 수 없게 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 외에도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 혹은 비가시적이지만 전염성을 갖는 바이러스, 음모론, 파생적 공포 등도 마찬가지로의 이유로 참조한다. 웹에서 이미지나 영상 등의 정보로 수집하는 방법 외에도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제어의 위기를 관찰하거나 경험하면서 그 속성들을 체화하고 이후 그림을 통해 감각적으로 풀어낸다.



물결 1 45.5 X 53.0cm, 캔버스에 유채, 2015

500,000원

방수연, b. 1984

건국대학교 현대미술학과 졸업

개인전

- 2014 Reminiscence (8번가 갤러리, 부산)

단체전

- 2014 제2회 공모전 (BJN Gallery, 서울)
- 2013 바람난 미술 (시민청, 서울)
- 2012 Young & Young 프로젝트 (영은미술관, 경기도 광주)
- 2012 아시아프 (문화역서울 284, 서울)
- 2011 바람과 물의 향연 (포스코미술관, 서울)

어린 시절 나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에서 고요와 정적을 익숙하게 견디며 자랐다. 워낙 작은 섬이기에 사람들의 왕래가 드물었고 늘 보는 것은 시간이 그대로 멈춘 듯 항상 똑같았다. 그곳에서 늘 바다가 잘 보이는 바위에 걸터앉아 수평선만을 응시해서 바라보았는데 그 수평선이 어떨 때는 하나의 뚜렷한 선으로 보여 이 풍경의 끝을 표시한 듯 보이다가도 어떨 때는 선이 보이지 않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바다로 보이고 어떨 때는 그 선이 희미해서 그 너머에 있을 다른 풍경에 대해 상상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어린 시절 수평선을 바라보며 했던 많은 생각들이 내가 하는 작업의 출발선이었다. 같은 공간에서 바라본 풍경일지라도 그 풍경은 보이기에 따라 전혀 다른 공간이 되어버리는 결코 객관적일 수 없는 모호한 성격을 지닌 주관적인 개념이 되는 것이 내 작업을 이루는 기초가 되었다. 하나의 생각이 끝나고 다른 생각을 시작할 때 그 사이에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간격이 있다. 그 간격은 크진 않지만 하나하나의 생각들이 이어져나가는 과정 속의 일부이자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어릴적 바다의 수평선을 바라보며 그 너머의 풍경을 상상했던 것처럼 내가 만들어내는 풍경은 한 장면의 완성과 다른 한 장면으로의 시작 사이에 존재한다.



상/ **발견자** 34 X 84cm, 10장의 아크릴판 위에 잡지(내셔널지오그래픽), 포토몽타주, 2014  
 하/ **어느 날** 60 X 80cm, 10장의 아크릴판 위에 잡지(내셔널지오그래픽), 포토몽타주, 2015

1,600,000원  
 1,800,000원

## 배준현, b. 1986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전공 석사 졸업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회화전공 졸업

### 개인전

2015 **One day\_어느 날** (공간291, 서울)

### 단체전

2015 **살피는 전시** (공간291, 서울)  
 2014 **Tomorrow** (국민아트갤러리, 서울)  
 2013 **안녕의 날들을 위하여** (국민아트갤러리, 서울)  
 2009 **THE INITIATIVE-SEOUL** (MUE Gallery, 서울)  
 2009 **IYAP2009-해석에 반대한다** (인터알리아, 서울)

작품 속의 장면들은 스펙터클의 방법을 차용하여 재구성한 가상의 이미지들로, 나는 작품 속에서 가상의 권력자로 등장하여 실재하지 않는 사건들을 만들어 낸다. 가상의 사건에 실재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진이 가진 신뢰성을 바탕으로 사진을 해체하고 재조합하여 증명의 기능을 상실한 증거사진이라는 가상의 실재적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기만을 목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 속의 이미지를 모방한다. 뉴스나 신문 등의 전문 보도 매체에 의해 전해질 만한, 르포르타주를 모방한 이미지는 주로 자극적인 사진, 끔찍한 재난의 풍경, 또는 아무도 본 적 없는 실재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유토피아(Utopia)의 풍경을 재현한 기만의 이미지들이다. 이 이미지들은 대중을 실제 본질로부터 멀어지도록 은폐, 조작의 의도를 갖고 사용된다. 재난의 풍경을 반복, 재생산하여 사건 자체를 익숙하게 만들어 본질을 흐리는가 하면 일종의 '메멘토 모리'로써 공포와 불안을 매개로 대중을 순종적이며,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안도감을 제공하여 현재 지배 권력이 유능하다고 느끼도록 세뇌하기도 한다. 반면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권력이 만들어 놓은 허망한 희망을 쫓게 만들기도 한다. 이처럼 권력이 개인을 소외시키는 방법을 차용하여 이미지, 특히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이미지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해 본다.



좌/ **오늘의 신간** 34 X 84cm, 41 X 32cm, 캔버스에 스프레이, 2015  
 우/ **오늘의 신간** 60 X 80cm, 41 X 32cm, 캔버스에 스프레이, 2014

600,000원  
 560,000원

## 신현정, b. 1979

런던 골드스미스 대학원, 순수예술 석사 졸업  
 뉴욕 스킵 오브 비주얼 아트, 애니메이션 학사 졸업

### 개인전

2015 **점선면과 날씨** (갤러리 AG, 서울)  
 2007 **Melting Operation** (리씨 갤러리, 서울)  
 2007 **순간\_Augenblick** (갤러리 킹, 서울)

### 단체전

2014 **Summer, Thursday, Library**, (스페이스 오뉴월, 서울)  
 2013 **Collective Diary\_September 17th**, (스페이스 매스, 서울)  
 2013 **Creekside Open** (A.P.T. 갤러리, 런던, 영국)  
 2013 **Absence vs Presence** (Frameless 갤러리, 런던, 영국)  
 2012 **Now/Here** (주영한국문화원, 런던, 영국)

나에게 있어서 캔버스는 주어진 정서적 혹은 물리적 상황을 민감하게 기록하는 시공간의 표면이다. 2013년부터 제작하고 있는 주요 작업 <오늘의 신간>은 감각적 경험의 짧은 지속성을 놓치지 않으려 작은 크기의 캔버스를 사용했고, 적절한 거리감이 형성된 제스처를 만들기 위해 스프레이를 사용하게 되었다. 캔버스 측면에 분사된 스프레이는, 가장자리에 다양한 색의 그라데이션을 만들며 캔버스 빈공간을 깊이 있게 부각시킨다. 형식주의 미술과는 거리를 두며 시작된 작업이지만 심리적 경험을 색으로 표현하는 측면에 있어 크기는 추상표현주의 색면추상과 관계를 찾을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오늘의 신간>은 캔버스 측면으로 인해 회화의 사물성이 강조되고, 설치 방식에 따라 주변의 환경과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 지난 개인전에서는 이러한 캔버스의 사물성과 책을 연관지어, 도서관의 신간 코너를 연상시키는 앵글 구조물 위에 디스플레이 하였다. 이렇게 두 가지 대립되는 지점들-앞서 말한 회화의 환영이 전달하려는 정신적 작용과 뒤의 사물성-이 나의 작업 안에 공존하고 있고, 앞으로 이 두 지점의 균형을 탐구하는 다양한 설치 실험이 가능하리라 본다.



좌/ 고의야생故意野生 No.2 49 X 49cm, C-프린트, 2014  
우/ 고의야생故意野生 No.2 91.5 X 129cm, C-프린트, 2014

800,000원  
1,800,000원

**안강현, b. 1978**

영국 런던 슬레이드 스쿨 오브 화인 아트 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학사 졸업

**개인전**

- 2014 카멜레온 (갤러리 팩토리+보안여관, 서울)
- 2010 주사위 던지기 (대안공간 루프, 서울)
- 2007 The Show, Mixed Media and a Video Camera (대안공간 미골, 서울)
- 2006 People Call Me Madame Owl (갤러리 팩토리, 서울)

**단체전**

- 2015 동식물계 Flora Fauna Society (갤러리 팩토리, 서울)
- 2013 두력, 아티스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보안여관, 서울)
- 2013 러닝머신 (백남준 아트 센터, 용인)
- 2012 망망, 공중 설치-커미션워크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 2012 정진(精進), 무용 퍼포먼스를 위한 설치 (경기도미술관, 안산)

카멜레온의 피부색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나뭇가지 위에선 갈색으로, 잎사귀 옆에선 초록으로 자기 피부색을 바꾸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주변 상황과 기분, 정서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피부 아래의 세포층에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생리 반응이지, 카멜레온 자신이 원하는 때에 바라는 색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주변 환경과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로 삶의 형태와 리듬이 변화하며 시간에 걸쳐 어떠한 패턴을 이루는 것에 관심을 갖았다. 2014년에 진행한 개인전 '카멜레온 Chameleon'은 오랜 기간 잡지에서 오려내어 모아 온 사진들을 플라주하여 의도적으로 배열되고 구성된 전시였다. 당시에 선보인 <고의야생> 시리즈에서는 야생을 그려낸다. 어느 요소도 다른 누구의 배경이 되지 않으면서 조심스럽고 위태롭게 서로에게 의지한 채 완성되지 않은 풍경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꽃피우다 35.5 X 35.5cm, 병뚜껑,압화,에폭시, 2014

600,000원

**양시내, b. 1981**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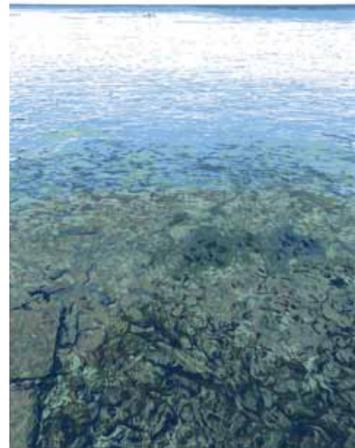
**개인전**

- 2014 꽃피우다 (갤러리엘리스, 경기도 광명)

**단체전**

- 2014 꽃 그아름다운 향기를 찾아서 (경인미술관, 서울)
- 2014 구하라담비 (시민청, 서울)

오늘도 길을 걸으며 한두 개 이상은 보았을 아니, 발끝에 채였을 빈 음료수통의 병뚜껑은 길거리 어디에서나 발에 채는 흔하디흔한 쓰레기다. 업사이클링 아트(Upcycling Art)란 사물들이 가진 기존의 역할이나 쓰임에 디자인적인 요소를 더하여 새로운 가치와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열린 마음과 낮은 눈높이로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것들 속에 깃들어 있는 또 다른 세상과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가치와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삶 속에서 꽃피우는 '일상의 예술'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나, 무엇으로든, 어디서든 자신만의 예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야말로 작가가 꿈꾸는 예술이다.



좌/ 서우봉 해변과 카약타는 사람 60 X 45cm, 실크스크린, 2015  
우/ 용눈이 오름에서 본 풍경 70 X 140cm, 실크스크린, 2015

800,000원  
1,600,000원

**양재열, b. 1979**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판화전공 수료  
추계예술대학교 미술학부 판화전공 졸업

**개인전**

- 2013 뉴칼레도니아 호텔아트페어(NCHAF) (Le Meridien Noumea, 그랑 테르, 뉴칼레도니아)
- 2010 투명한 일상전 (갤러리도트, 울산)
- 2009 BELT Artist + Curator\_Pick & Match (갤러리PICI, 서울)

**단체전**

- 2015 청춘을 달리다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 2015 ART EDITION (Hongkong Marco Polo Hong Kong Hotel & Harbour City, 홍콩)
- 2015 서귀포에 살다 (서귀포 예술의전당, 제주)
- 2015 갑마장 아트프로젝트 - 말 (조랑말 체험공원 내 갤러리, 제주)
- 2014 ART EDITION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나는 익숙하거나 평범해서 쉽게 지나치는 대상들을 새롭게 가공하여, 보는 이들에게 일상적이되 일상적이지 않은 경험으로 끌어들이는 새로운 장면을 보여주기 원한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다. 나는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닌 느끼는 것을 그리려 한다. 내가 느낀 그 감성을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감상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한다. 나는 그 방법의 하나로 실크스크린 기법을 자주 사용한다. 실크스크린은 소량의 예술품을 제작할 때 쓰이는 판화식 인쇄 방법이다. 이 기법은 각 작품의 오리지널리티를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느낀 감성을 토대로 만든 색과 그림의 가장 기본적인 점, 선, 면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 즉흥적이거나 우연한 효과를 기대하는 불규칙적인 모습이 아닌, 내가 경이로운 자연을 보고 경험한 여러 가지 감성을 단순하면서도 좀 더 뚜렷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다.



좌/ 동맹 80 X 116cm, 장지에 아크릴릭, 2013  
우/ 산란장 70 X 70cm, 장지에 아크릴릭, 2013

1,600,000원  
850,000원

**오세경, b. 1990**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학과 석사 수료  
세종대학교 회화과 졸업

**개인전**

- 2014 기꺼이 속는 삶 (Gallery DOS, 서울)

**단체전**

- 2015 사이 예술 축제 (공간 사이, 서울)
- 2014 바람난 미술 (시민청, 서울)
- 2014 (Thomas Park, 서울)
- 2014 IMAGO - 무엇이 당신을 두렵게 하는가? (인디아트홀 공, 서울)
- 2013 Hidden Stage (갤러리 그림손, 서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메멘토>는 단기 기억 상실에 걸린 주인공이 자신의 아내를 죽인 범인을 찾는 줄거리다. 10분마다 기억을 잊어버리는 주인공의 유일한 단서는 자신이 쓴 기록들뿐이다. 그리고 그의 약점을 이용하는 형사와 형사를 죽이기 위해 주인공을 이용하는 여자의 이야기가 영화의 전반을 내달린다. 결말에 가서 주인공은 범인과 함께 모든 진실을 알게 되지만, 자신의 단기 기억 상실을 이용해 자기 상황에 유리한 기록으로 진실을 조작한다. 이 같은 고민에서 나온 이번 작업은 그리고 싶은 마음과 불편한 마음이 동시에 진행된 일이었다. 사건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출구가 없다는 막막한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그림에서 어두운 장소로 이어진다. 화면 안 이미지들은 집단과 집단, 개체와 개체, 집단과 개체 등의 대립을 연출시켰다.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기억들은 마치 끈질기게 사냥감을 따라다니는 하이에나와 들개 같았고 기계와 인간은 사건을 대하는 나의 기대이자 현실이다. 그리고 대립한 순간을 조명으로 확인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그들의 갈등에 대한 표현이 곧 사회를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했던 순간의 우리와 닮아있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내가 안다고 착각한 것과 무엇도 모르면서 인정한 것들이 섞여 만들어낸 응어리일지도 모르겠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15 80 X 120cm, 잉크젯 피그먼트 프린트, 2014

2,000,000원

오세신, b. 1981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산업디자인 전공 사진디자인 세부전공 석사 졸업  
서울예술대학 사진 전공 졸업

개인전

2014 〈갤러리 나무, 서울〉

단체전

2013 Post-photo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2012 Post-photo (토포하우스, 서울)

나는 항상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말투를 사용할까 어떤 행동을 할까 상대방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 할까?’ 고민한다. 그리고 고민 속에 선택되어진 행동 반응 말투들이 모여 새로운 하나의 캐릭터가 되고 그 캐릭터의 개발의 성공 여부에 따라 또 하나의 캐릭터가 추가된다. 허나 이런 과정들이 반복될수록 진짜 나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어 진다. 〈Bravo My Life〉는 내가 사회생활에서 경험한 실상을 토대를 배경으로 셀프라는 표현방법을 통해 내가 보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시각화하는 작업에서 시작되었다. 여러 감정 중 작업 당시의 배경이 되는 공간 안에서 즉흥적 감정을 표현하고, 지정된 공간 안(무대)에서의 퍼포밍(Performing) 그리고 인물의 제스처(Gesture)를 통해 감정을 극대화시켜 현실적이면서 비현실적인, 나이지만 내가 아닌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 작품을 통해 소외된 자아를 각기 다른 공간 속에서 꺼내어 바라보고 놓여진 상황과 자아를 재 탐구하여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고, 이런 과정을 통해 본인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위로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좌/ 우주의 프랙탈 60 X 60 X 5cm, 유리에 알루미늄 코팅, 2012 (2 each)

3,000,000원

우/ 시선 50 X 150 X 5cm, 거울에 샌딩, 2007 (3 each)

3,000,000원

오순미, b. 1976

서울시립대 환경조각과 대학원 졸업  
남서울대학교 환경조형학과 졸업

개인전

2014 봉인된 시간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2012 Cosmos Fractal (덕원갤러리, 서울)  
2007 유한(有限)한 무한(無限)함 (한글라스 갤러리 파란네모, 서울)  
2006 KAPM 대한민국미술제 최우수작가초대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단체전

2015 중첩된 시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술관, 서울)  
2015 도시+樂 (성남아트센터, 성남)  
2014 The NordArt 2014 (Kunstwerk Carlshütte, 뷔델도르프, 독일)  
2014 Future Identities - Bodies. Places. Spaces(Palazzo Ca' Zanardi, 베니스, 이탈리아)  
2013 평창비엔날레 (동해 양바 엑스포 전시관, 동해)

작품의 공간과 시간의 개념은 작업에 있어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시장은 단순히 전시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작품이 놓인 본래의 장소를 벗어나서는 의미가 상실되는 공간이다. 또한, 공간과 작품의 유기적인 관계가 강조되며, 작품 내부로 관객을 유도하는 형식은 시간성을 내포한 유기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관객들은 이 유한한 공간 안에서 리플렉션(Reflection : 거울에 반사되는 현상 혹은 그 그러한 이미지)으로 인한 끝없이 펼쳐진 공간과 마주하게 된다. 위아래로는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끝없는 심연이 이어지고, 좌우로는 표식들이 끝없이 반복된다. 그리고 이 표식 사이로 흘러들어오는 빛 혹은 영상은 다시 거울에 비치면서 광활한 우주로 펼쳐진다. 타인과 나 자신 사이에서 거울에 비친 다른 세계, 그것을 비추는 또 다른 세계가 무한히 반복된다. 그 무한한 공간 안에서 유한한 나 자신과 조우한다. 시간에 의해 언젠가 사라지는 거울 속에 비친 무한한 존재를...



좌/ 검은 그림 42 X 59cm, 종이위에 잉크, 2014  
우/ 검은 그림 2 42 X 59cm, 종이위에 잉크, 2014

400,000원  
400,000원

우정수, b. 1986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전문사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예술사 졸업

개인전

2015 불한당의 그림들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서울)

단체전

2013 스토리텔링 (갤러리 화이트블럭, 파주)  
2013 가까운 미래, 먼 위안 (갤러리 화이트블럭, 파주)  
2010 New vision 2010 (갤러리 소소, 파주)  
2010 Linguistic Morphology : Art in Context (성곡미술관, 서울)  
2009 화려한 외출 (공평아트센터, 서울)

누아르란, '검은, 어두운, 우울한' 등의 의미를 지닌 프랑스어다. 글자 그대로 필름 누아르 (Film Noir)는 어두운 색채와 주제를 담고 있는 영화다. 사회 제도에 의한 폭력의 구조, 법 질서와 정의가 유전되는 데서 오는 공포 등을 B급 감성을 이용하여 보여주었다. <검은 그림(Picture Noir)>은 이 드로잉 시리즈들의 이름이다. 각각의 드로잉은 내가 이야기를 다루는 거리에 따라 다른 소재와 표현방식이 있다. 숲, 도깨비, 화산, 유령선, 괴어, 폐허 등 주로 타자화된 공간, 대상들을 그리고 있고, 이러한 소재들은 현실에서 소외된 믿음을 대변한다. 노력만큼 보상을 받는 합리적 자본주의, 선은 악을 이긴다는 믿음, 세상은 평등한 질서로 이루어진다는 생각 등, 근본적으로 현실을 지배하는 것은 절대적이고 안정된 질서가 아니라 혼돈과 부조리임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그림 안에 폭력과 광기로 나타난다. 이전까지 작업에서 폭력과 광기를 통한 부조리를 이야기했다면 최근에는 그에 대한 저항을 이야기하고 있다. 손가락 하나로 할 수 있는 저항부터 집단적이 만들어내는 저항 등, 다루는 이미지가 이전보다 더욱 직접적이 된 만큼 작업을 가벼워지게 하려고 노력을 하였다.



좌/ 계단 100 X 80cm, c-print, 2011  
우/ 달항아리 100 X 80cm, c-print, 2012

2,000,000원  
2,000,000원

원서용, b. 1981

MFA, Slade school of Fine Art, UCL, London  
상명대학교 사진학과 졸업  
서울예술대학 사진과 졸업

단체전

2014 International Emerging Artist Award (두바이)  
2014 사진과 미디어: 새벽4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3 차이의 공간: part 2 (갤러리 조선, 서울)  
2012 FreshFaced+WildEyed2012 (Photographers' Gallery, 런던, 영국)  
2012 아트광주 특별전: Double Democracy 2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

나의 작업은 사진을 통해 일상의 평범한 오브제에 지나지 않았던 사물을 특정한 지시적 의미를 지닌 대상으로 승화시키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를 위해 나는 일상의 오브제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던 기존의 회화, 설치미술의 표현방식에 주목하고 사진 스튜디오라는 특수한 공간 안에 구현하기 위한 실험을 지속해왔다. 회화의 화면이 만들어내는 공간의 환영, 설치 미술 속 오브제가 공간과 맺고 있는 관계, 이 모든 것을 사진 스튜디오라는 공간에서 촬영되는 한 장의 사진 속에 압축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인식되었던 평범한 오브제는 설치, 회화, 사진의 매체 속에서 공통된 표현의 대상이 되면서 작가의 주관에 담긴 상징적 표현의 대상이 된다. 그 결과로 일상의 오브제는 사진 속에서 지시적 기능을 지닌 특정 대상으로 변화하고 사진의 객관적 정보전달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환영의 문제를 다루는 회화, 공간의 문제를 다루는 설치미술과 같은 다른 매체를 활용하여 구현해봄으로써 서로 다른 매체가 대상을 표상해내는 과정 그리고 그 차이점을 한 장의 사진 속에 드러내 보고자 한다.



좌/ 청자 상감운학미키문 매병 48 X 29 X 29cm, 청자, 2011

3,000,000원

우/ 청자 상감운학스타벅스문 대접 5.5 X 16 X 16cm, 청자, 2011

3,000,000원

유익정, b. 1981

홍익대학교 대학원 도예전공 박사 수료  
홍익대학교 대학원 도예과 석사 졸업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도예 유리과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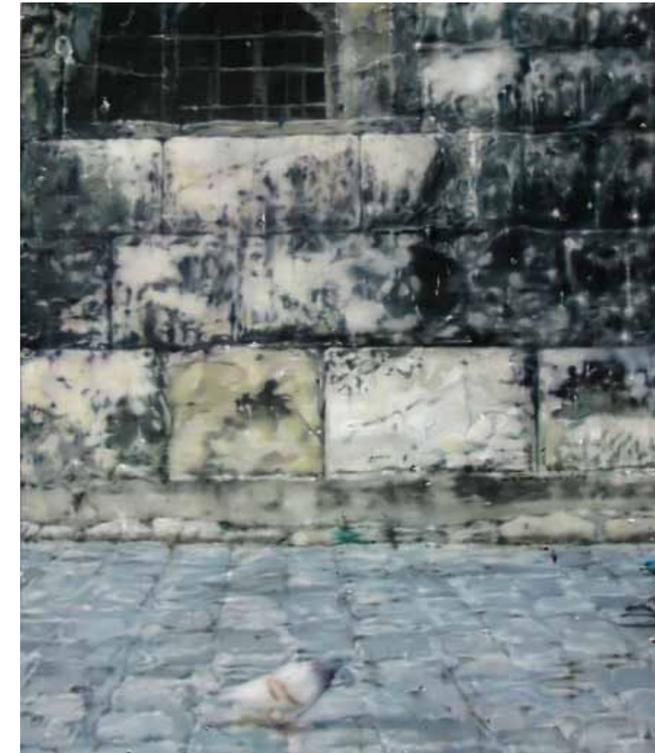
개인전

- 2015 The Skin of Desire (갤러리 Koo, 서울)
- 2014 (두원아트센터, 부산)
- 2011 진화가면(進化假面) (송은아트큐브, 서울)
- 2010 방어기제(防禦機制) (UM Gallery, 서울)
- 2010 방어기제(防禦機制) (무심갤러리, 청주)

단체전

- 2015 (이천세라믹스창조센터, 이천)
- 2015 노마드레지던스-인도 귀국 보고전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김해)
- 2015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김해)
- 2015 Earth Matters (Lalit Kala Akademi 첸나이, 인도)
- 2014 아시아 현대도예전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김해)

발견된 유물(遺物)을 통해 비워진 역사의 시간을 채우듯이, 나의 작업은 지금의 시간을 기록한 미래의 유물일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의 행위 속에 수많은 '오류'들이 발현(發現)될 수 있음을 우리는 지나온 역사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나의 작업에서 개인적 시선을 통해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인 오류들은 사실을 기록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지점인데, 그 때문에 나의 작업은 잘 만들어진 결과물보다는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집중해야 할 이유가 된다. 도자기는 인류와 함께해 온 오랜 시간 동안 색과 형태, 문양 등을 통하여 당대의 사상과 유행 등을 반영한 문화의 집약체로 삶과 예술의 경계가 맞닿아 있는 중요한 시대적인 상징물이다. 따라서 내 작업에서의 '도자기'는 의식의 흐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器)이자, 정신을 보전(保全)할 수 있는 중요한 매질(媒質)이 된다. 현재의 시간을 옛 유물에서 볼 수 있는 기법과 형식을 빌려 '재현(再現)'함으로써 과거와 현재, 실재와 허구 사이를 부유(浮遊)하는 나의 작업은 미래에는 사실 될 지도 모를 일이다.



비둘기 72.7 X 60.6cm, 캔버스 위에 유채, 2013

1,600,000원

윤석원, b. 1983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현대미술전공 석사 졸업  
건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졸업

개인전

- 2014 자라나는 것 들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 2014 한 권의 풍경을 위한, 프로젝트 스페이스우민 (우민아트센터, 청주)
- 2013 미뤄진 것들 (화봉갤러리, 서울)
- 2011 양가감정 (갤러리무이, 서울)
- 2010 버릇이 습관이 될 때 (가화, 서울)

단체전

- 2015 리얼리즘 인터페이스 (석당미술관, 부산)
- 2015 Ways of recording (갤러리바톤, 서울)
- 2014 MODEL3 (노암갤러리, 서울)
- 2014 바람난 미술 (시민청 / 서울의료원, 서울)
- 2014 SURFACE (갤러리바톤, 서울)

2012년부터 <기억과 감정에 관한 삼부작>을 진행 중이다. 두 이야기, <미뤄진 것들>(2013), <자라나는 것들>(2014)은 전시를 통해 갈무리했고, 세 번째 이야기 <만난 적 없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앞선 두 전시의 작업들이 판단을 유보한 과거 특정 시기의 경험(미뤄진 것들)과 현재의 생활에서 마주하는 삶의 경험(자라나는 것들)을 소재로 한 작업이라면 <만난 적 없는 것들>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 시기에 있었던 일들까지 포함한다. <미뤄진 것들>, <자라나는 것들>, <만난 적 없는 것들>은 과거-현재-대과거의 시간 배열을 가진다. 나는 선행의 시간관이 아닌 순환적/다층적 시간관을 믿는다. 과거와 현재 쌓여 미래를 만들며, 만난 적 없는 미래는 만난 적 없는 과거와도 이어져 삶을 엮어간다.

개인과 사회 그리고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많은 틈 사이에는 모순과 역설이 가득하다. 유한한 삶을 모두가 영원 할 듯 살고 있는 듯하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런 풍경 뒤에는 늘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 나는 그런 풍경 속으로 들어가 선불리 소통하려 들기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둔 채 고요하게 바라 보려 한다. 나는 작업을 통해 어떤 종류의 진리나 영원성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가늠하려 한다.



무제 45 X 60cm, 캔버스 위에 유화, 2012

1,200,000원

**이민정, b. 1979**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전문사 졸업  
 파리-세르지 국립 고등 미술학교 졸업(DNAP, DNSEP)  
 계원조형예술대학교 매체예술과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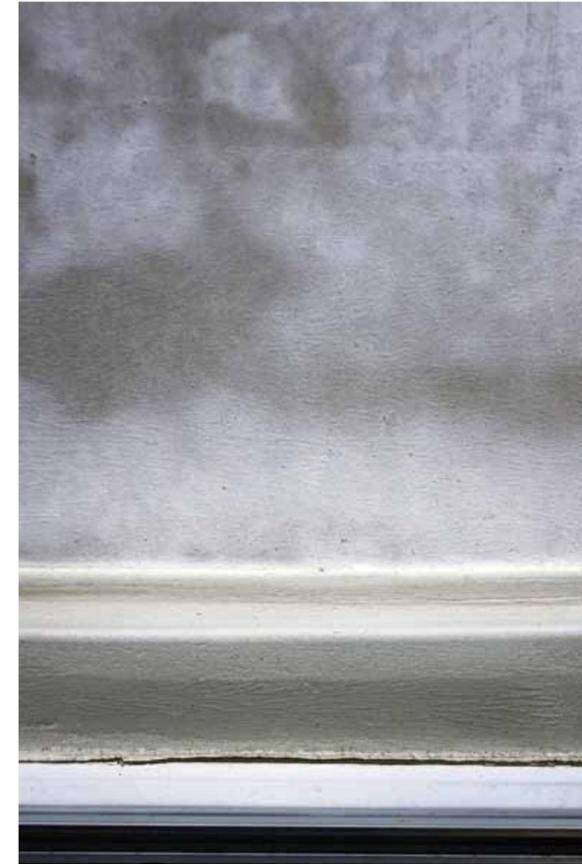
**개인전**

- 2014 (아다마스253갤러리, 파주)
- 2013 Reminiscence II (플레이스 막, 서울)
- 2012 Reminiscence (신한갤러리, 서울)
- 2012 (LIG 아트홀, 부산)
- 2007 아름다운 분기점 (가갤러리, 서울)

**단체전**

- 2014 The Unplanned (누크 갤러리, 서울)
- 2014 그림보기 (175갤러리, 서울)
- 2013 가까운 미래 먼 위로 (갤러리 화이트 블럭, 파주)
- 2013 차이의 공간 (갤러리조션, 서울)
- 2012 Drawing Party (인터스트리얼 카바레, 서울)

작가로서의 나는 추상적인 형태가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정서에 반응하고 움직인다. '형태'라고 뭉뚱그려 말할 수밖에 없는, 붓질로부터 생겨난 이런저런 길이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색깔들은 처음엔 그냥 얼룩과도 같은 것이지만 이것을 의미 있는 하나의 선, 하나의 감정으로 변모시키고자 하는 것이 나의 작업이다. 매일 거울을 통해 확인하는 나의 얼굴이나 도시의 풍경, 외워진 자연 속의 패턴들이 은연중에 이 변모의 과정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그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감을 잡기도 힘들 만큼 은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생각하는 방식이나 기억, 감정 등을 포함하는 꼭 나만큼 나이를 먹은 나의 '의식'이 그림의 무형의 소재라고 볼 수 있다.



Homescape 3 75 X 50cm, 파인아트지에 디지털프린트, 2014

600,000원

**이소연, b. 1989**

성신여자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단체전**

- 2014 제7회 아시아프 (문화역서울 284, 서울)
- 2014 성신여대 서양화과 졸업전 - 그녀 (성신여대 조형관, 서울)
- 2013 내게 거짓말을 해봐... (갤러리 피아노키오, 양평)
- 2011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 한국스카치™ 부스 공모전 수상작전 (코엑스, 서울)

나의 작업은 인공의 공간(집의 내부)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상상하고 발견하여 이를 사진 매체로 표현하는 것이다. 대학에 입학하며 언제나 자연의 풍경을 볼 수 있었던 집을 떠나게 되었다. 바뀐 주거환경에서 마주했던 풍경들은 주로 인공적인 풍경이었기에, 집 안에서 기억 속의 자연을 상상하며 작업을 구상하곤 했다. 어느 날 정적인 집 안 공간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마치 자연을 멀리서 조망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의 집과 일상적인 장소들(학교나 다른 집)에서 포착한 풍경들은 공간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흔적이 만들어낸 풍경들이기도 하다. 이것들은 나와 내 친구들 혹은 익명의 사람들이 이 공간을 떠나도 계속해서 변해갈 자연스러운 풍경이다. 우리는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인, 안이면서 밖인, 일상적이면서 특별한 이 풍경들을 매 순간 여행하고 있다. 자연의 공간과 인공적인 공간은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각자의 공간 안에서 끝없이 펼쳐지는 각자의 지평선을 볼 수 있다. 모두 다른 삶 속에서 '각자의 지평선'을 여행해보길 바란다.



어떤 연막 33.4 X 53cm, 캔버스에 유채, 2013

800,000원

**이슬기, b. 1988**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전공 석사 졸업  
 국민대학교 미술학부 회화전공 졸업

**개인전**

2014 Marginal Space (카페 드 유중, 서울)

**단체전**

- 2015 상수\_회동 (예술지구p, 부산)
- 2013 SCENE (쾌연재단자미미술관, 강원)
- 2011 제 4회 ASYAAF (홍익대학교, 서울)
- 2011 In the City\_동방의 요괴 (충무아트갤러리, 서울)
- 2010 6'yd (국민대학교 아트갤러리, 서울)

〈어떤 연막(Instant Spaces)〉연작 작업은 상경 후 접한, 원룸 빌라가 즐비한 거주지 근방을 관찰한 결과물이다. 낮설게 다가오는 서울이라는 새 거처를 재장소화 하는 방편으로 개인적 정서를 투영해서 보기도 하고 기록할 만한 것들은 사진을 찍어 두었는데 이는 작품의 소재와 구성의 요소가 되었고 그것들로 작업한 것이 나의 풍경화 연작이다. 빈번한 주거지 이동 경험은 본인 앞에 주어진 공간을 탐색하게 했다. 낯이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 서고 소멸되는 계류된 공간에서 사라짐이 예고된 소재를 발견하였다. 이는 위태로움과 상실, 공허로 표현되는 비애의 정서를 야기했다. 불안정한 상황에 실마리를 찾을 수 없어 헤매던 정서는 이내 허허벌판이 아닌 무언가 있던 자리를 대체하며 빠르게 형태를 바꾸어가는 도시의 사정으로 시선을 돌려 투사하게 되었다.



사적인 취미활동 70 X 53cm, 리놀륨판화, 2014

500,000원

**이승아, b. 1985**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판화전공 석사 졸업  
 추계예술대학교 판화과 졸업

**개인전**

- 2012 (갤러리at, 남양주)
- 2011 BELT (조현갤러리, 서울)
- 2011 A-Cafe 프로젝트 (티치아프리카, 일산)
- 2011 작은 파문 (대안공간 눈, 수원)
- 2010 결국, 연결되어 있다 (Street139, 서울)

**단체전**

- 2014 브리즈 아트페어 (네모, 서울)
- 2014 육감적서사 (나무화랑, 서울)
- 2013 한 여름 밤의 소설 어페어 - 반짝쇼 (대학로 홍익대 아트센터, 서울)
- 2012 브리즈 아트페어 (엔트러사이트, 서울)
- 2010 가을 문화의 향기 - 일곱 이방인의 방문 (섬 박물관, 서울)

아무 의미 없이 내뱉어지고, 그 말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표현하는 것에서부터 본인의 작업은 시작된다. 현실 세계는 수많은 인구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타인에게 영향을 준다. 칼자국으로 표현된 흐름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흐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혼돈의 이미지를 강조한다. 절단된 신체의 조각들과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사물들을 재조합하여 새로운 에피소드들을 만든다. 각각의 에피소드들은 사적인 경험에서 오는 감정이나, 특정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신체의 움직임, 타인과 만나면서 느껴지는 인간관계의 특징들을 나타낸다. 완전하지 않은 신체는 언제나 완벽할 수 없는 인간관계를 보여주고, 낯선 이미지를 만들어 흥미를 유도한다.



좌/ 월든 60.7 X 72.7cm, 캔버스에 아크릴, 2015

1,000,000원

우/ 시간 60.6 X 72.7cm, 캔버스에 아크릴, 2015

1,000,000원

**이영희, b. 1980**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일반대학원 동양화과 석사 졸업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개인전**

- 2014 Still Life (이중섭 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제주)
- 2012 숲에 가다 (The Garage Gallery, 서울)
- 2007 하루공간 (송은갤러리, 서울)

**단체전**

- 2015 청춘을 달리다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 2015 Ob-la-di, Ob-la-da (대안공간 돔, 인천)
- 2013 오늘 부는 바람 (이중섭 미술관, 제주)
- 2011 사랑을 품다 (금천예술공장, 서울)
- 2009 간직된 이야기 (갤러리SP, 서울)

내 작업의 전반적인 큰 틀은 순환이다. 초반 작업은 일상의 반복에 초점을 맞춰서 일기를 쓰듯 스토리 중심의 그림을 그렸었다. 계속해서 하다 보니 일상의 반복이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생성과 소멸이라는 순환을 자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최근의 작업은 자연의 함축적인 모습으로 그것을 표현해보고 있다. <월든>이라는 작업은 책에서 따온 제목인데 내가 이야기하는 순환의 의미를 글로 가장 잘 설명해주는 책이라 할 수 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수필집 『월든』은 이상적인 순환의 삶을 잘 보여준다. 이 글에서 작가는 2년 동안 혼자 숲 속에서 자급자족하며 느낀 점을 표현하고 있다. 최소한의 삶에 대한 이야기와 자연에 대한 경의를 끊임없이 표하고 있는데 개인의 일상을 통해 철학을 확립할 수 있다. 이 그림은 그 글에 대한 나의 표현이고 삶을 바라보는 내 방식을 얘기하고 있다. <시간>이라는 작업은 의미 없을 것 같은 세밀한 작은 붓질이 시간을 갖고 겹쳐지면서 형상을 만들어 낸 것이다. 시간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을 시각화해보고 싶은 생각에 그려진 그림으로 시간이 만들어 낸 공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숨박꼭질 30 X 30cm, 캔버스에 유화, 2014

250,000원

**이윤서, b. 1983**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전문사 재학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예술사 졸업

**단체전**

- 2015 아트월스페이스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나는 시각 정보들의 모든 것을 화면에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인상적인 형과 색의 일부를 가져와 캔버스 위에 층위를 다르게 하여 그려나간다. 여러 각기 다른 이미지로부터 그려진 각각의 레이어들은 최상위의 레이어에 가려지거나 일부만 드러난다. 그러나 최상위 레이어는 그 이전의 것들 정도의 비중을 가지며, 이는 조형성을 위해 직관적으로 선택되었을 뿐이다. 이미지들 사이의 연관성은 제한된 시간을 범위로 설정된 것이며, 따라서 그림들은 '3월의 그림', '4월의 그림' 등과 같은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내 화면에 위치한 이미지들 사이의 맥락은 단절되어 있으며 이들은 그저 '시간'을 공유한 것으로, 이는 동시공간에 비슷한 가치를 지니는 이슈들 일부를 한 화면에 소환한 결과물이다. 이는 시간의 기록이자, 동시적 감수성의 기록이기도 하다. 작은 사이즈의 그림들은 현재 내가 인터넷으로 채집하는 이미지의 스케일을 반영하고 있다.



작/ 변형 후의 잔디밭 53 X 72.7cm, 캔버스에 오일, 2015  
우/ 시간 50 X 50cm, 캔버스에 오일, 2014

1,200,000원  
1,500,000원

이은새, b. 1987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학과 평면조형 전문사 졸업  
홍익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 2015 틈: 간섭: 목격자들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 2015 틈: 간섭: 목격자 (갤러리 조선, 서울)

단체전

- 2015 북극의 개념: 정신분열증적 지리학 (아마도 예술 공간, 서울)
- 2015 Art Wall Space (가나아트 스페이스, 서울)
- 2014 쇼케이스전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 2014 다른 공기 (스페이스BM, 서울)
- 2014 오늘의 살롱 (커먼센터, 서울)

나는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시각적 경험들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회화로 재현한다. 그렇게 포착된 이미지들은 불특정 사건들에 의해 주변이 흔들리는 순간이 존재하는 장면들로 이미지들은 본래 가졌던 맥락에서 벗어나 내가 주관적으로 이해했던 방식으로 표현한다. 또한, 그림에서 언젠가 자극에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애초에 견고하지 않은 붓질로 이루어진 상황/풍경들은 각자 변화의 순간을 마주한다. 그것들은 밑으로 꺼지거나 위로 분출하는 사건 등의- 변형을 겪는데, 이 과정에서 공간/상황/풍경의 뒤틀림은 균열을 만들고 불안정한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이다. 그 순간들은 매번 다른 느낌과 방식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회화적 표현도 각기 개별적인 방식을 취한다. 그리고 상황의 순간에 집중하는 만큼 즉각적으로 표현될 때가 많다. 그러나 그 즉각적인 표현들은 그 순간을 유지시키고 확장하기 위해 여러 레이어로 중첩되어 하나의 화면을 형성한다. 그렇게 보여지는 (실제를 구성하는 화면과는 다른) 과도한 색상이나 반전된 색상은 불안정한 순간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실제의 감각을 벗어나는 다른 감각이 뒤섞여 나오는 시각적 뒤틀림의 과정을 보여준다.



작/ 독서 45.5 X 53cm, 캔버스에 유채, 2015  
우/ 잔향(殘香) #02 72.7 X 60.6cm, 캔버스에 유채, 2015

800,000원  
1,000,000원

이정엽, b. 1977

국민대학교 금속공예학과 대학원 석사 졸업  
국민대학교 금속공예학과 졸업

개인전

- 2015 기억의 흔적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서울)
- 2013 (두루아트스페이스, 서울)
- 2006 N-Space (구 골목갤러리, 서울)

그외 단체전 다수 참여

나의 주된 관심사는 인간의 내면(內面)과 기억 그리고 이들의 관계다. 내면을 들여다보기, 내면을 파헤치기, 내면의 세계, 등. 예술계통의 창작활동을 하는 이들이라면 흔히 접하는 말이기도 하다. 내면은 문자 그대로 어느 물체의 안쪽을 뜻하지만, 위에 나열한 표현들이 가리키는 것은 인간의 정신, 심리에 관한 것이다. 내면 대신 마음이라 바뀌어도 무리 없어 보인다. 하지만 내면의 사전적 뜻을 알았다 해도 그 뜻이 얼른 와 닿지 않는다. 그래서 이에 대해 내 나름의 정의를 내보았다.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신과 관계 맺어온 대상들에 대한 수많은 (어쩌면 무한한) 기억들의 중첩. 그 대상들은 타인일 수도 있고 동, 식물일 수도 있으며, 어떤 장소, 물건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쌓인 기억들은 한 인간의 인격을, 개성을 만드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기억을 토대로 사고하고 예측을 하며 창조를 한다.



상/ 벽돌 위에 벽돌1 34 X 25 X 11cm, 벽돌, 아크릴, 2015  
하/ 벽돌 위에 벽돌2 34 X 25 X 11cm, 벽돌, 아크릴, 2015

600,000원  
600,000원

## 이정형, b. 1983

홍익대학교 조소과 대학원 석사 졸업  
홍익대학교 도예유리과 학사 졸업

### 개인전

2015 파인워크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서울)

### 단체전

2015 Ceramic is Our Specialty (아라아트센터, 서울)  
2014 허무맹랑 (토카아트센터, 서울)  
2014 파라다 사라다 (피아룩스 갤러리, 서울)  
2014 Vice Versa (가회동 60 갤러리, 서울)  
2014 아마도 에뉴얼날레 - 목하진행중 (아마도 예술공간, 서울)

'Fine Works'는 'Fine Art', '순수한 예술' 즉, 예술이라는 것이 순수하게 어떤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행위라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예술의 범주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궁금증으로 연결된다. 일할 때는 일의 특수성 때문에 주로 작가(아티스트)의 작업을 돕거나 전시 공간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나의 생계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예술의 일부인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생긴다. 'Fine'이라는 단어가 말하는 순수함은 경제활동이 끼어들 여지를 보이지 않는데, 경제활동 없이 순수하게 작업만 하기로 어려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일하면서 하는 예술은 무엇인지, 그것은 순수하지 않은지, 그리고 예술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부산물들이 다시 예술작업이 되는 과정은 도대체 어느 범주에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나의 작업이다.



좌/ 공사장 105 X 105cm, 종이에 아크릴, 2009

우/ 공사장\_심리적 풍경 130 X 162cm, 캔버스에 아크릴, 2011

1,500,000원  
2,500,000원

## 이주리, b. 1986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전문사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예술사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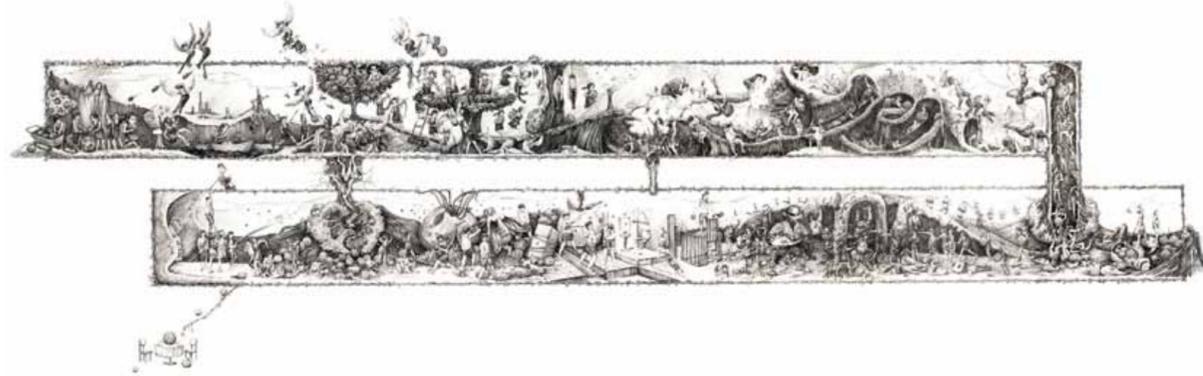
### 개인전

2014 (갤러리현대 원도우, 서울)  
2013 (OCI 미술관, 서울)  
2012 (프로젝트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서울)

### 단체전

2015 (아마도예술공간, 서울)  
2015 (OCI 미술관, 서울)  
2014 (교역소, 서울)  
2014 (삼성미술관 플라토, 서울)  
2013 (사비나 미술관, 서울)

언어화되지 못한 표현과 감정이 익숙해지는 것을 거부한 채 내밀한 공간에 쌓여간다. 보이지 않지만 발붙인 현실과 긴밀하게 연결된 내밀한 움직임은 내가 겪은 언어화하기 어려운 불안하고 나약한 존재로서의 대상이나 상황, 견고한 구조와의 심리적인 경험을 담고 이러한 기록의 지속은 환경을 지각하는 방편이 되었다. 공사장이나 항구 등 건설되지 않은 채 남겨진 미완의 공간이나 녹슨 육중한 움직임으로 존재를 알리는 기계의 공간을 상상적인 터로 사용하며 그리기보다는 그려지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작업방식의 지속은 감정의 곁을 담은 이미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어졌고 이미지는 단순히 어떤 대상을 나타내는 재현적 표상이 아닌 그 안에 의식화되지 않는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무의식에 대한 호기심으로 연결되어 의식 너머의 차원, 나의 의지로 지배되는 영역이 아닌 그곳이 지니는 성격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100% 스팩클링 45 X 112cm, 종이 위의 잉크, 2013

550,000원

**이화평, b. 1985**

국민대학교 미술학부 입체미술과 졸업

**개인전**

- 2014 달콤한 나의 숲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 2013 리브 라이브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단체전**

- 2015 키미포유 (키미아트갤러리, 서울)
- 2014 프로젝트대전 2014 (대전창작센터, 대전)
- 2014 99도씨 쇼케이스전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 2013 소사벌 야외조각전 (평택호 호수공원, 평택)
- 2013 프로젝트대전 에네르기 (한빛탑, 대전)

나의 작업은 고단한 삶의 어두운 면을 환상적 표현으로 덧칠해 역설적으로 표현한 회화 작업이다. 침체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정신적 방황과 경제적 빈곤을 겪고 있는 또래들을 위한 위로이자, 현실에 어김없이 굴복하기만 했던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반성문이기도 하다. 괴기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지하 월세방의 난장판과 아름답지만 섬뜩한 비밀을 감추고 있는 과일 농장의 두 세계에서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허우적대며 악당들과 싸우는 풍경을 극적으로 연출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기록하기보다는 몽상적인 표현으로 비틀어 내면서 유희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것은 이미 지나간 괴로운 일들을 정리 하며 웃고 넘겨버리는 나만의 삶의 태도이자 방식이고, 지금까지의 비루한 현실을 정제하여 얻어낸 단 하나의 메시지다. 종이에 상처를 내는 날카로운 펜과 그것을 아주 고운 물감으로 덮는 에어브러시 작업 통해 상처 나고 치유하는 모순된 물리적 과정을 반복한다. 펜이 지나간 모양이 상당히 일정하여 판화의 에칭 기법을 닮았는데 이는 에칭 제작 원리를 역으로 풀어헤친 드로잉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매일의 어느날 48 X 55cm, 종이에 연필, 2015

800,000원

**임선구, b. 1986**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과 석사 재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 졸업

**단체전**

- 2014 DV-VA(DimensionVariable Various Artist) (문화아카이브 봄, 서울)
- 2015 생성된풍경 (갤러리가비, 서울)
- 2015 Art Canvas Project 1부 (갤러리 쿤스트디렉트, 레겐스부르크, 독일)
- 2015 망각에 저항하기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안산)
- 2015 아트캔버스프로젝트 2부 (갤러리 41, 서울)

내가 보고, 듣고, 기억하는 것들을 꺼내서 화면 위에 옮긴다는 것은 대상이나 공간 자체를 그대로 묘사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나의 드로잉은 현실의 대상이 현실적 맥락으로부터 절연되어 순전한 기호적 세계 속에 새롭게 편입되는 쪽에 가깝다. 나에게서는 흑연이 만들어 내는 선과 색이 현실의 대상을 새롭게 인식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한다. 또한 나는 종이 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 또 다른 공간을 그려내면서 '틀 짓기'를 한다. 이를 통해 외적 공간과 내적 공간을 분할하고, 프레임에 의해 받아들인 공간을 한정된 소세계로 인지하고 있다. 흔히 드로잉을 인간의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 어떤 생각과 그것의 형성 과정, 활동, 성장, 소멸 등을 갈고리로 꼬집어내는 행위라고 말한다. 나는 드로잉이 가지는 특성과 그것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더 확장시키고자 한다. 평면 안에서 형성되고 있지만, 그것이 무한한 공간을 염두에 두고 있는, 나만의 기호를 통해 평범한 것들을 새로운 세계로 만들려고 한다.



좌/ 금붕어 60 X 47 X 51cm, 스테인레스 스틸, 2014  
우/ 코끼리 60 X 50 X 85cm, 스테인레스 스틸, 2012

3,000,000원  
3,000,000원

## 임종욱, b. 1980

경기대학교 미술 디자인 대학원 조각과 석사 졸업  
경기대학교 예술대학 환경조각학과 졸업

### 개인전

- 2013 (동탄복합문화센터, 화성)
- 2011 (인사갤러리, 서울)
- 2008 (경기대학교 박물관, 수원)

### 단체전

- 2014 옹이 (KOSA space Gallery, 서울)
- 2014 폭탄(Bomb) (예술공간봄, 수원)
- 2013 GROUP SHOW (호연갤러리, 수원)
- 2013 Identity (수원미술관, 수원)
- 2013 지구별 목소리 기획전 (수원시 어린이미술체험관, 수원)

작품에서 확인되는 동물은 죽어있다. 생기도 찾아볼 수 없다. 즉 작품의 깊숙한 틈새를 마주한 관객은 사실적인 재현을 주목하기 이전에 빛깔이 느껴지지 않는 싸늘한 주검을 목격하게 된다. 대상을 미적 작품으로만 인지하기에는 마음 한구석에서 일어나는 불편함을 떨칠 수 없으리라.

철을 두드리고 뜨거운 불로 녹여 용접하는 방식은 인간이 동물의 숨통을 끊어놓고자 둔탁한 망치와 날카로운 칼로 내리치는 모습과 교차하여 상상이 되기도 한다. 그 장면에서 결코 동물의 신음을 관람객이 듣기는 어려울 것이다. 무관심한 관람자의 눈에는 잘 다듬어진 예쁜 동물만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분명 소리 없는 슬픔일 것이다. 철이라는 재료를 강하고 부드럽게 다루는 작업방식뿐만 아니라, 현재 사회 현상을 작업 주제로 채택하고 그것에 더욱 폭넓은 관점으로 접근하며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현실을 노골적으로 고발하는 방식은 아니다. 작품에 복잡한 내러티브도, 자극적인 이미지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접 주제를 전달하지 않아도 미시적 관점에서 제시해 본다.



그것은 계단처럼 91 X 30cm, 캔버스에 유채, 2014

900,000원

## 장원호, b. 1990

건국대학교 예술학부 현대미술전공 재학

### 단체전

- 2015 Homeless: 집없음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 2014 It may have become a drawing, an installation, or a painting (아트스페이스 노, 서울)
- 2014 바람난 미술 (시민청/영등포구청, 서울)
- 2014 세 개의 각 (잠실창작스튜디오, 서울)
- 2014 모락모락 (갤러리일호, 서울)

길거리에는 수많은 개인과 그들을 둘러싼 공간이 흩뿌려져 있다. 그것은 누군가의 앞을 지나가는 노인이거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가만히 불빛을 발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들은 분명한 형태를 지니고 서로와의 관계를 형성하며 하나의 일시적 장면을 생성한다. 이러한 장면은 시간의 흐름처럼 수없이 많이 생성되고 소멸되는데, 그 안의 개체들은 어딘가 모르게 모두 닮아있다. 그들이 공유하는 현상은 단순히 표피적인 특징일 수도 있고 개개인이 내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감정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반복되어 생성되는 그들은 오히려 온전히 인식되지 않는다. 주체적인 대상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다. 포착된 장면 안의 공간과 사람들은 공허한 여백처럼 느껴진다. 나는 장면에 등장하는 사람과 공간의 관계 그리고 그것들을 인식하는 틈에서 발생하는 공백에 주목한다. 장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해체와 결합의 반복은 위치하고 있는 부분들의 역할을 바꾸거나 모호하게 한다. 그러한 편집된 장면은 개체 간의 틈, 공백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성된 새로운 장소이자 무대가 되고 타인의 영역으로 확장된다.



작/ 나는 네 소리를 듣는다 53 X 45.5 cm, 린넨위에 유화, 2014  
우/ 양떼와 보라색 개 53 X 72cm, 린넨위에 유화, 2014

800,000원  
1,000,000원

장종완, b. 1983

홍익대학교 회화학부 졸업

개인전

- 2014 (금호미술관, 서울)
- 2014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서울)
- 2012 (살롱드 에이치, 서울)
- 2011 (텔레비전12, 서울)

단체전

- 2014 The 2nd Shenzhen 독립 애니메이션 비엔날레(OCT-LOFT, Shenzhen, 중국)
- 2014 (삼상당대미술관, 항저우, 중국)
- 2014 (아트이슈 프로젝트, 타이베이, 대만)
- 2014 (난지갤러리, 서울)
- 2014 (아마도 예술공간, 서울)
- 2014 (대구시립미술관, 대구)

예전부터 종교단체에서 나눠주는 짜라시나 사회주의 국가의 선전 포스터, 그리고 이발소 그림을 좋아했다. 이런 이미지들은 현재 진행 중인 작품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앞에서 언급한 그림들 속에 묘사된 유토피아의 풍경들은 눈부시게 아름답고 희망차며 또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들은 특이하게도 마치 과도하게 성형된 사람의 얼굴을 보는 듯한 낯설고 불안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했다.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감정의 생성이 나에게 무척 흥미로운 소재거리로 생각되었다. 또 이발소그림이나 종교단체 짜라시에서는 특이한 조합의 풍경들이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어 알프스 산 아래 한국의 초가집이 있고 그 옆으로 폭포수가 흐르며 하늘에는 학이 날아다니는 요상한 낙원의 모습들이 묘사되어 있다. 이런 생뚱맞은 조합에서 오는 유머러스함은 막장으로 얼룩진 아침 드라마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현재 사회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했다.



작/ 여행지에서 24 X 32cm, 종이에 유화, 2014  
우/ 여름방학 24 X 32cm, 종이에 유화, 2014

700,000원  
700,000원

전병구, b. 1985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예술과 석사 재학  
계원조형예술대학 매체예술과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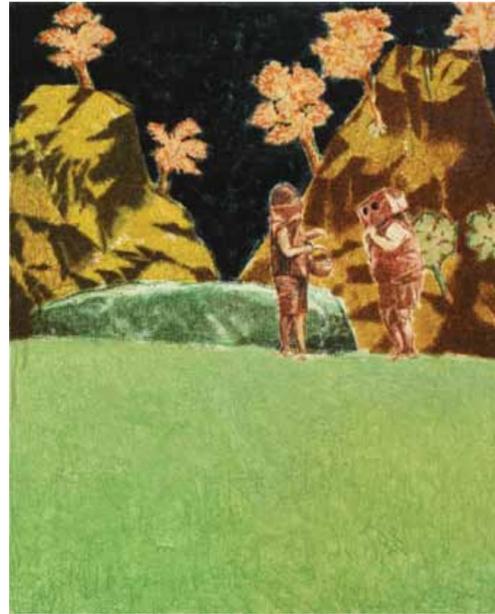
개인전

- 2013 발자국도 없이 (갤러리 사각형, 서울)

단체전

- 2015 다음 장 (공간 가변크기, 서울)
- 2014 DV-VA (문화아카이브 북, 서울)
- 2014 10주년 기념전 (대안공간 눈, 수원)

일상에서 찍은 스냅사진 또는 영화나 웹에서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들 가운데 인상적인 장면들을 수집하고, 그 가운데 일부를 다시 그림으로 옮긴다. 수집된 이미지들은 순간의 감정들 혹은 시각적 흥미로움에 의해 임의로 선택되었다. 일상의 파편들이 나의 회화적 장치 예컨대, 캔버스의 크기, 물감의 농도, 붓 자국, 색채 등을 통하여 캔버스 위에서 독특한 공기를 만들어내고, 그림으로써 일상과의 거리를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작/ 균형을 위한 체조 90.9 X 72.7cm, 캔버스에 수채, 2014  
우/ 연덕 65.1 X 53cm, 캔버스에 수채, 2014

1,800,000원  
1,000,000원

전현선, b. 1989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대학원 서양화과 석사 재학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 2015 불과 대화들 (플레이스 막, 서울)
- 2013 연극 (옆집갤러리, 서울)
- 2012 비밀스런 만남 (비원갤러리, 서울)
- 2012 끝없이 갈라진 길 (옆집갤러리, 서울)

단체전

- 2015 두렵지만 황홀한 (하이트컬렉션, 서울)
- 2014 99도씨 유망예술지원사업 쇼케이스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 2014 오늘의 살롱 (커먼센터, 서울)
- 2013 MayFest (스페이스 오뉴월, 서울)
- 2013 The Fantasy (김현주갤러리, 서울)

나의 그림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흘러간다. 그리고 그 속에는 많은 사물들과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원래의 의미를 벗어 던지고 화면 속에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위치를 잡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그들을 가지고 장면을 구성하면서 나의 회화 안에서만 기능하는 상징체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 어떤 대상이 우연히 들어와 특정한 장소에서 낯선 의미를 획득하기도 하고, 사소한 사물이 갑작스레 상징적 존재가 되기도 한다. 또, 한 곳에서는 배경으로 사용되었지만 다른 곳에서는 중심이 되는 이중적 역할을 맡기도 한다. 회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은 단지 하나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진행과 반복 속에서 그 의미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작/ No Name 38 X 38cm, 장지에 먹, 2014  
우/ No Name 38 X 38cm, 장지에 먹, 2014

800,000원  
800,000원

정세원, b. 1981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학부 한국화 전공 석사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한국화 전공 학사 졸업

개인전

- 2013 휴먼\_차가운 거리두기 (이랜드스페이스, 서울)
- 2012 Give a Hug (미술공간현, 서울)
- 2009 유년기Childhood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단체전

- 2014 Affinity 90 (갤러리 조선, 서울)
- 2014 Seascape (갤러리 포월스, 서울)
- 2014 시대와 감성 - 한국 미술의 내일을 열다 (해든뮤지움, 강화)
- 2013 위로의 방법 (갤러리 푸에스토, 서울)
- 2013 DAY OFF (호연갤러리, 수원)

작업은 의아스러운 일상이다. 당연한 삶의 방식이 이상하고, 익숙한 장면이 익숙하지 않음을 되새김질한다. 작업 초기의 관심은 '유년기'로 표상되는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인 아이들을 향했다. 그러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지점에 놓인 '인간 본성'을 맞닥뜨리고, 한 발짝 거리를 두어 서늘하게 관계하는 '나'를 포함한 '우리'를 발견한다. 우리는 사회라는 거대한 유기 덩어리가 움직이기 위해 끊임없이 소비되고 연소 되어버리는 한낱 날개의 소모품과 같은 익명의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바그닥거리다 서로를 훼손하기도 한다. 밀려오는 일상 속 이미지들 속에서 익숙하지만 낯선 그 무엇을 그린다. 의도를 담기보다는 나 역시 대상과 거리를 두어 제안을 할 뿐이다. 꾸역꾸역 힘주기보다는 거슬리지 않는 자연스러움으로 말이다.



'HAPPY'아, 힘을 내! 86 X 122 X 37cm, 숯가루, 수성접착제, 2011

3,000,000원

정재영, b. 1980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환경조각학과 석사 수료  
경기대학교 예술대학 환경조각학과 졸업

개인전

- 2013 People-dog: Dog-people (인사갤러리, 서울)
- 2011 Self-portrait of Ordinary People (대안공간 눈, 수원)
- 2010 Destroy (대안공간 눈, 수원)

단체전

- 2013 성남국제아트페어 (성남아트센터, 성남)
- 2013 Utopia Blue (래미안 갤러리, 서울)
- 2013 Aesthetic of Material III (Gallery4walls, 서울)
- 2013 The First (성남아트센터, 성남)
- 2013 Identity (수원미술전시관, 수원)

〈HAPPY〉연작의 주제는 '생명'이다. 살아있는 생명체의 귀와 꼬리를 자르는 행위에 대한 분노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귀와 꼬리가 잘린 채 살아가는 그들에 대한 연민으로 작업은 시작한다. 그렇게 시작된 〈HAPPY〉연작은 어린 시절 함께했던 나의 'HAPPY'에 대한 아픈 기억까지 꼬집어내게 되었다. 내 실수로 인해 차에 치여 죽기도 하고,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맞아서 불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 이후로 나는 애완동물을 기른 적이 없다. 그들을 '행복'하게 돌봐줄 자신도 없고, 그들을 잃었을 때의 슬픔을 감당할 자신 또한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행처럼 애완동물을 기르고, 귀와 꼬리까지 잘라 가며 그들을 꾸미고, 그러다 싫증이 나면 버리는 사람들에게 애완동물은 그저 움직이는 '장난감'일 뿐이다. 누구를 위한 'happy'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HAPPY〉연작은 전혀 'happy'하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고, '숯'이라는 재료를 이용해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좌/ 식물 1 91 X 117cm, 캔버스 위에 유채, 2010

1,800,000원

우/ 식물 8 53 X 33cm, 캔버스 위에 유채, 2010

800,000원

조대원, b. 1986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구.서울산업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석사 재학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구.서울산업대학교) 조형예술학과 졸업

단체전

- 2014 (아트스페이스 노, 서울)
- 2014 (커먼센터, 서울)
- 2013 (관훈갤러리, 서울)
- 2012 (SP 갤러리, 서울)

처음 하나의 화초를 그릴 때 나는 화초와 그를 감싸는 공기를 그리려 했다. 나의 머릿 속에 선 잎과 공기를 분류하고 대결하는 구도로 부딪히거나 혹은 서로를 지우는 형태로 단번에 그려낸다. 하나의 화초에서 여러 화초를 한쪽에 그리면서 잎과 공기들은 하나의 추상적 흐름으로 변했다. 그들은 부딪히고 미끄러지며 더 이상 잎의 형태와 그 형태를 감싸는 공기로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나의 그림은 추상적 형태에 와있다. 이상한 믿음이 존재한다. 마치 무속신앙처럼. 그 믿음은, '가슴으로 느끼는 것은 손-붓-화폭에 바로 전달될 것이다.'라는 믿음이다. 결국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것을 물질계로 끌어들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그 과정엔 비약도 과장도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슴-손-붓이라는 통로만이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에 사람들이 나의 그림을 그냥 지나칠때 수행이 부족해서 혹은 이 짧은 통로에 무엇인가 가로막는게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검증되지 않은 믿음이다. 이상주의적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어딘가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 기묘한 믿음이 가슴을 뛰게 한다면 굳이 검증할 필요 있을까.



좌/ 철선그림-붉은 소 30 X 60 X 15cm, 자연석, 스테인레스 코일, 2015  
우/ 철선그림-푸른 말 40 X 50 X 30cm, 자연석, 스테인레스 코일, 2015

3,000,000원  
3,000,000원

조영철, b. 1980

성신대학원 조소과 석사 졸업  
남서울대학교 환경조형학과 졸업

개인전

- 2013 도시를 위한 네발짐승 (팔레드 서울, 서울)
- 2012 도시를 위한 네발짐승 (메세나 폴리스, 서울)
- 2011 관계 맺기 프로젝트 - 외출 (세종문화회관, 서울)
- 2010 도시를 위한 네발짐승 (갤러리 이안재, 서울)
- 2009 도시를 위한 네발짐승 (관훈갤러리, 서울)

단체전

- 2014 Korea Festival (Hongkong Timessquare, 홍콩)
- 2014 여주 馬 을 품다 (여주 박물관, 여주)
- 2014 Infiniti 시승행사 초대전 (Infiniti 서초전시장, 서울)
- 2014 Art Park Zoo (Hmall, 서울)
- 2014 BMW mini 시승행사 초대전 (BMW mini 서초전시장, 서울)

야생동물들을 도시 곳곳에 배치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을 포함한다. 아스팔트 위를 걷고, 파도가 일렁이는 서해안을 걷고, 수풀이 우거진 시골길을 걷는다. 마치 야생동물이 그러하듯이 이 도시에서 이 도시로 유목을 위한 이동을 한다. "이동"이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조각이 권고한 권위를 가진 고체 덩어리 조형물에서 벗어나 수많은 이동을 함으로써 관객들과 가볍게 만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동을 통해 조각은 단지 고품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관객들과 이야기하는 살아있는 생명을 뿜어내고 있음을 증명한다.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작품에 앉거나 올라타서 동물들과 교감하며 조각을 살아 숨 쉬게 한다. 작품의 정서는 자연과 동물, 인간이 서로 만나는 순간 생성된다.



비오는날 80 X 100cm, 장지에 아크릴채색, 2012

1,700,000원

조은주, b. 1987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학부 동양화와 석사 졸업  
덕성여자대학교 예술학부 동양학과 졸업

개인전

- 2015 (갤러리탐 청담, 서울)
- 2014 (The K gallery, 서울)
- 2014 (Cafe de U Jung, 서울)
- 2013 (터치아프리카, 일산)
- 2012 (화봉갤러리, 서울)

단체전

- 2015 새기다 (신한갤러리, 서울)
- 2015 비어있는 실험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777, 양주)
- 2015 예술모텔777호: 열정을 위한 다시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양주)
- 2014 The Great Artist (포스코미술관, 서울)
- 2014 신년청년작가소품전 (갤러리 가이아, 서울)

조은주의 <친밀한 관계> 연작은 특정 장소에서 느꼈던 특유의 감정과 현실감을 매우 건조하게 표현함으로써 익명의 현대인의 대변하고 있다. 그것은 밝고 경쾌하지만, 결코 심리적 안정과 평정을 보장할 수 없는 차갑게 정제된 개인들의 집합, 고립, 고독, 소외, 단절의 표상을 상징한다. 이 '특정의 공간'에서 만나는 개인들은 이해를 전제한 대화의 어떤 깊이도 생각한 채 존재와 망각의 저 멀리에서 유령처럼 왔다가 사라진다. 공간 자체가 하나의 유리이자 되비침의 구슬처럼 된 이 '특정의 공간'은 개별이자 익명인 사물존재들이 서로를 빛내면서 공간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을 유발시킨다. 익히 보아왔던 기현상, 장면, 스틸들이 겹치면서 장면의 스토리를 구성하고 상상의 데자뷰를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조은주의 화면이 구사하는 특징들이다. 그러므로 <친밀한 관계>는 전혀 친밀하지 않은 공간과 사물, 인간실존을 반어적으로 말한 표현이다. 공간의 기묘하고 낯설고 살풍경인 장소에서 느끼는 안도는 그러한 심리상태의 공감만이 친절한 방식이요 현대의 대면임을 말해준다.



작/ 바다 무궁화 25 X 34cm, 캔버스 위에 유채, 2014

700,000원

우/ 탐색토끼 33 X 53cm, 캔버스 위에 유채, 2013

800,000원

최수진, b. 1986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양화과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 2015 모서리 산책, 무지개 숲 (이유진갤러리, 서울)
- 2014 Lumpy Bumpy Ground (갤러리비원, 서울)
- 2011 알레고리 숲: 불안의 노래 (메이크샵아트스페이스, 파주)
- 2010 Curiosity, cloud, words (쿤스트독, 서울)

단체전

- 2014 99도씨 유망예술지원사업 쇼케이스전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 2014 교차시선 (리각미술관, 천안)
- 2013 Come Together (메이크샵아트스페이스, 파주)
- 2012 34회 중앙미술대전 (한가람미술관, 서울)
- 2011 Summer Drawing Festival (쿤스트독, 서울)

주로 여행 중에 촬영한 사진이나 키워드 검색으로 수집한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장소에 대한 회화적 재구성을 시도한다. 사진 이미지는 화면구성에 구조적인 레퍼런스가 되며 물감의 물성과 붓질에 따라 본 이미지에서 비켜 나간 새로운 장소가 점차적으로 구축된다. 가상의 장소가 만들어 지면 주인공을 데려오는데, 주인공의 주변은 심리적 기제 속의 대상이나 물건, 공기덩어리가 부유하거나 감싸고 있는 상태로 연출된다. 화면은 빠른 붓질과 덩어리째 올려진 물감으로 다양한 기법이 혼용된 울퉁불퉁한 화면으로 이루어진다. 화면 안의 다양한 틈과 레이어들로 인해 불안정하게 미끄러지는 시선을 유도하며, 주인공을 감싸고 있는 상황들은 보는 이의 시선에 따라 다양한 해석의 장을 열어두고 있다.



작/ 201310221545 45.5 X 65.1cm, 캔버스에 아크릴화, 2014

1,000,000원

우/ 201307181459 45.5 X 65.1cm, 캔버스에 아크릴화, 2014

1,000,000원

최어령, b. 1981

Maryland Institute College of Art, Painting, MFA, 졸업  
덕성여자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 2015 기록풍경 (스페이스 선+, 서울)
- 2007 Trans-Transparent (스페이스 빔, 인천)

단체전

- 2015 선물 (스페이스선+, 서울)
- 2012 Neo-Inscription (Artspace H, 서울)
- 2010 New (벨라웨어 센터 포 더 컨템포러리 아트, 윌밍턴, 미국)
- 2010 Thesis show-Imparceptable (매릴랜드 인스티튜트 컬리지 오브 아트 마이어호프 갤러리, 볼티모어, 미국)
- 2010 Out of Order (매릴랜드 아트 플레이스, 볼티모어, 미국)

일상은 마지막을 만나기 위해 소비해야 하는 하루하루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나 귀중하고도 하찮은 것이 우리의 일상이다. 이런 공허함과 허무함을 떨쳐내고자 살아가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그림을 통해 기록하려고 노력한다. 이를 위해 주로 휴대폰에 찍힌 이미지를 사용한다. 여기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내가 살아가는 곳이다. 매일 보는 그저 그런 익숙한 풍경이다. 하지만 이것도 세심히 들여다보면, 다시 보게 만들어지는, 익숙해서 특별하게 보이는 그런 순간 풍경이 있다. 주로 빛의 변화, 시간의 변화, 날씨 변화, 계절의 변화, 온도의 변화, 색의 변화, 감정의 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작품의 제목 또한 시간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된 이미지의 찍힌 날짜와 시간을 숫자로 차례대로 표기했다. 순간이었으나, 그것이 모여 일상이 됨을 드러내고자 한다. 사는 곳을 순간의 기억과 감정을 함께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이곳에 머물렀었다고, 바라보고 있었노라고,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는 나의 기억을, 그 무언가의 존재를 '그림'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오랫동안 가슴속에 새기고 싶은 소심하지만 강렬한 마음의 표현이겠다.



좌/ LSI108 80 X 80cm, 러스트 인화지에 피그먼트 잉크 프린트, 2014  
우/ LSI122 60 X 60cm, 러스트 인화지에 피그먼트 잉크 프린트, 2014

400,000원  
400,000원

최창재, b. 1981

경일대학교 대학원 사진영상학과 석사 졸업 (순수사진전공)  
경일대학교 조형대학 사진영상학과 졸업 (보도 순수사진전공)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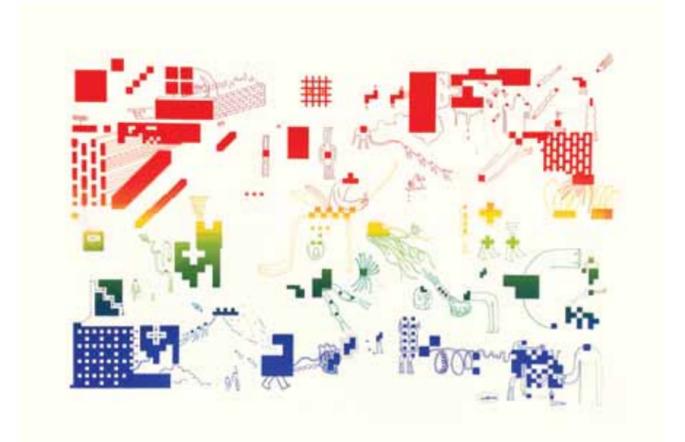
- 2015 아무것도 아닌, 그렇지만 모든 것 (A1 갤러리, 서울)
- 2012 홀로가라, 행복한 이여 (갤러리 티케, 창원)
- 2012 대한민국 사진축전 (SETEC, 서울)
- 2012 빛의 로고스 (태 갤러리, 대구)
- 2009 풍류 바라보기 (갤러리 온, 서울)

단체전

- 2014 바람난 미술 (시민청 시민 프라자, 서울)
- 2014 바람난 미술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서울)
- 2014 폰 프라이즈 (서울대학교 미술관 우석홀, 서울)
- 2014 바람난 미술 (송파구청, 서울)
- 2014 발견 (아트센터 피플러스, 서울)

—中一切多中— (하나에 모두 있고, 많은 데도 하나 있어)  
—卽一切多卽— (하나가 바로 모두요, 많은 것 또한 하나이니,)  
—微塵中含十方 (한 티끌 작은 속에 세계를 머금었고,)  
—一切塵中亦如是 (모든 티끌마다 우주가 가득하네)

의상대사『법성계』중에 위와 같은 말이 있다. 이것은 '한 개의 티끌 속에 우주가 들어 있다'는 것으로 그 뜻은 광대한 우주가 한 티끌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정보가 한 개의 작은 티끌 속에도 들어 있다'는 의미이다. 이 작업은 컵의 커피 찌꺼기 자국에서, 우주의 모습이라고 알려진 사진들과 비슷한 이미지를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 '뜰앞의 잣나무'라는 禪家의 話頭처럼 '소재(우주, 진리)는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는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 진행한 작업이다.



좌/ 픽셀피플3 24 X 24cm, 종이에 스프레이, 잉크펜, 2011  
우/ 픽셀피플4 37 X 56cm, 종이에 실크스크린, 펜 드로잉, 2013

500,000원  
800,000원

추미림, b. 1982

단국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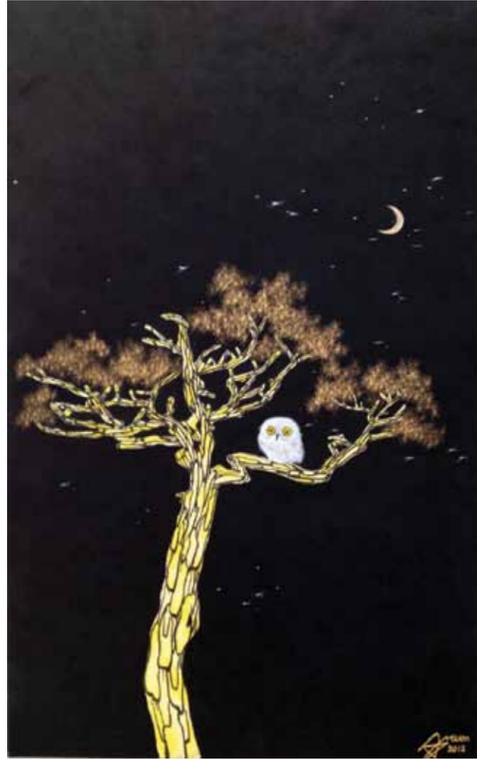
개인전

- 2014 POI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서울)
- 2013 WWW.THE WORLD WE LIVE IN (갤러리 스테프, 싱가포르)
- 2012 픽셀 스페이스 (한국디자인공예문화진흥원 원도우 갤러리, 서울)

단체전

- 2014 가방담독 (시몬느 0914 갤러리, 서울)
- 2014 가면의 고백 (MoA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 2012 Three Wishes for Christmas (아트센터나비/SKT-타워, 서울)
- 2012 Art Flash - KIAF특별전 (코엑스, 서울)
- 2011 Korea tomorrow (예술의 전당, 서울)

나의 대부분의 일상을 도시(오프라인)와 웹(온라인)에서 보내고 있다. 도시와 웹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보인다. 여러 가지가 서로 뒤얽혀 만들어진 집합체처럼 보이기도 한다. 끝없이 생겨 나는 도시의 빌딩들은 웹에서 내보내는 새로운 정보들과 닮았다. 도시는 혈관 같은 도로를 뺀어 피를 순환시키고 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쉬지 않고 성장하고 있다. 웹 또한 수많은 링크로 정보를 순환시키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된다. 나는 이러한 웹과 도시의 풍경들에 관심이 많았고 이것을 평면작업과 설치작업으로 풀어내고 있다.



밤새도록 53 X 33.3cm, 잠지에 혼합재료, 2012

750,000원

편아름, b. 1988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학과 석사 졸업  
단국대학교 동양학과 졸업

단체전

- 2014 편아름, 최연서 2인전 (더클래스청담, 서울)
- 2014 단국대학교 동문회전 단독연 (갤러리즈, 서울)
- 2013 홍콩 뱅크 아트페어 (홍콩 아일랜드 상그릴라 호텔, 홍콩)
- 2012 하노이 국제 호텔아트페어 (하노이 크라운프라자호텔, 하노이, 베트남)
- 2012 Squatter Group (갤러리즈, 서울)

소나무는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로부터 소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오래 사는 나무이므로 십장생의 하나로 장수를 나타냈으며, 추운 겨울 비바람·눈보라의 역경 속에서도 언제나 푸른 모습을 지니고 있는 소나무의 기상은 선비의 깨끗한 절개와 흔들림 없는 의지의 상징이었다. 이러한 소나무의 모습은 나에게 흥미롭게 다가왔고 이에 다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재들이 더해졌을 때 많은 표현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물과 사물의 구성 그 구성과 여백의 조화가 나에게 참 새롭게 다가왔다. 모든 작품 속에서 소나무는 나와 동화되고 환상에서 깨어나다 시리즈에서는 내 상상 속의 추상적인 공간은 간혀있는 공간이지만 완전히 간혀있다고는 볼 수 없는 세상이라는 가상공간 안에서 머물며 자유를 갈망하는 나의 모습을 표현해 본 작품이다.



좌/ 노인 66.0 X 57.0cm, 실크사, 노방천, 광목천, 2014

750,000원

우/ 대화 51.0 X 35.5cm, 실크사, 노방천, 광목천, 2013

650,000원

하지혜, b. 1987

충남대학교 산업미술학과 졸업

단체전

- 2014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전 (서울)
- 2014 바람난미술전 (역사박물관, 서울)
- 2013 공예트렌드페어 작가공방전 (코엑스, 서울)
- 2011 한국공예대전 역대 수상작가 작품전 (송리문화예술회관, 익산)
- 2010 한국공예대전수상작품전(송리문화예술회관, 익산)

그림공부를 하기 위해 매일 1호선 전철을 타고 천안과 서울로 두세 시간을 오갔다. 그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게 되었다 그들의 대화, 표정을 보니 사람마다 제각각이었고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 모습들을 내 드로잉북에 담게 되었고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의 기반이 되었다. 연필을 기본으로 색연필, 물감, 콩테 여러 재료들이 가진 장점들이 사람들의 모습을 잘 살려주었고 이것을 좀 더 평범하지 않게 표현하고 싶었다. 당시 난 학교에서 섬유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공예라는 큰 영역 안에서 내가 기초로 하고 있는 드로잉을 섬유로 접목시키고 싶었고 정갈하게 한 땀 한 땀 바느질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을 거칠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며 때로는 얌전하게 나타냈다. 그러기 위해서 실을 풀어헤치고 다듬으면서 드로잉에서 보이는 굵은 선과 가는 부분을 최대한 살리려 했다. 대부분 지나칠 수 있는 반복되는 삶을 한 장의 드로잉으로 보여주고 싶다.



좌/ 그리드 스케이프 GS207 77 X 55cm, 잉크젯 피그먼트 프린트, 2014  
우/ 그리드 스케이프 GS35-1 77 X 55cm, 잉크젯 피그먼트 프린트, 2014

1,000,000원  
1,000,000원

홍기웅, b. 1984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사진디자인 석사 졸업  
서울 예술대학교 사진학과 졸업

개인전

- 2015 (아트스페이스 루, 서울)
- 2012 YAP 선정 작가 (아트사간 갤러리, 서울)

단체전

- 2013 평창 스페셜 올림픽2013 아트링크 프로젝트 (인사아트센터, 서울)
- 2011 아시아프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 2011 서울포토2011 (코엑스, 서울)
- 2010 시선의 독재 2인전 (삼청갤러리, 서울)
- 2010 제지멀티 예술공간 상설전 (제지마스, 서울)

〈Gridscape〉는 서로 양립 불가능한 복수의 건축물과 공간 배치를 하나의 추상적 장소에 나란히 구현한 작업이다. 이는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도시들이 지향하며 실천하고 있는 공간형식의 유토피아에 관한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GRID적 형태의 많은 건축물, 마천루 그리고 공간의 역사성과 장소성이 무시된 시멘트와 콘크리트 건축물로 대표되는 도시 공간 구조가 탄생함으로써 이로 인해 파괴되는 또 다른 공간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 작업이다. 오늘날 도시의 모습은 표준화에 대한 극단적 집착과 자본 및 권력의 지배 아래 생산된 물질주의적 빌딩과 회색 콘크리트 건축물의 집합이다. GRID구조는 합리성이라는 이름 아래 훌륭하게 활용되어 도시의 통제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는 과거의 도시가 가졌던 생기를 앗아갔고 문화 자발적이고 풍요로웠던 거리는 단숨에 중성화되어 도시의 색을 잃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도시 공간 속에서 보이지 않게 가졌던 도시에 대한 기억과 나와 도시와 관계된 삶에 대한 기억 또한 잃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Gridscape〉작업에서 GRID라는 재현의 대상은 도시 속에 실재하는 건축물을 재조합하여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념의 세계로 변화시키는 작업이다.



좌/ 광양 04 30 X 30cm, 캔버스에 유채, 2013  
우/ 광양 02 30 X 30cm, 캔버스에 유채, 2013

450,000원  
450,000원

홍재진, b. 1989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 대학원 석사 재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 졸업

단체전

- 2015 (300/20, 서울)
- 2015 (갤러리가비, 서울)
- 2014 Dimention Variable Various Artist (문화아카이브룸, 서울)
- 2014 커먼센터개관전 (커먼센터, 서울)
- 2013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 2013 (홍익대학교현대미술관, 서울)

바람에 움직이는 식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그 움직임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들이 순간적으로 만들어내는 형태와 색에 매료되어 한참을 바라보고 있게 된다. 대상을 담은 화면은 고정되어있기 때문에 강한 바람에 격렬하게 움직이는 식물의 모습은 화면을 가득 채울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또 빛에 따라 붉은색이 등장하기도 하고, 바람의 방향에 의해 전혀 다른 대상처럼 보이기도 한다. 율하동 시리즈와 광양시리즈는 이러한 요소들을 재현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바람을 타고 각자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식물을 영상으로 기록한 후,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있는 수십 개의 프레임들을 생략한다. 그리고 남겨진 장면을 등성등성하게 선택하여 연속적으로 나열하여 하나의 시리즈로 구성한다. 일부만 남겨진 장면들 사이를 추측해나가면서 바람의 움직임을 상상하게 한다.



좌/ 햇빛 드로잉 53.8 X 72.7cm, 종이에 혼합재료, 2014

750,000원

우/ 722호 78.8 X 109cm, 종이에 혼합재료, 2014

950,000원

## 황정원, b. 198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 대학원 석사 재학  
세종대학교 서양화와 졸업

### 개인전

2012 (하나아트 갤러리, 서울)

### 단체전

2014 (문화아카이브 북, 서울)

2013 (화이트블럭 갤러리, 파주)

2012 (플래툰 쿤스트할레 쇼케이스, 서울)

2012 (키아트 갤러리, 서울)

작가는 우리 주변에 소비되는 사물들의 형태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그 패턴이 추상화되는 미학적 경험을 한다. 이때 사물의 형태는 사물의 기능이 제거된 회화적 대상이 되고, 낮은 형태 앞에서 정서적인 느낌이 경험된다. 순수하게 감각적인 요소로 환원된 형태들은 다시 작가의 정서적인 인상으로 환원되는 추상의 과정을 겪는다. 이러한 행위의 반복으로 작가는 도시에서 발견되는 대상들의 모양을 관찰한다.

장소의 흔적들을 트레이싱하는 〈The Trace〉 시리즈는 흔적의 우연한 형태성을 발견하고, 형태들을 종이에 옮기며 발생하는 화면구성에 집중한 드로잉 시리즈다. 조금 더 거시적인 시선의 이동으로 〈Room no.722〉는 공간을 기억하는 풍경에 대한 모양, 형태들로 이루어진 조립식 풍경을 그려낸다. 이후 작업 된 〈이동풍경〉 시리즈는 한정된 공간도 아닌 어떤 부분도 아닌, 어느 지점부터 지점까지 작가가 이동하며 만난 풍경의 재료들을 혼합한 조립형 풍경화이다.

## 2015 아트캠페인 바람난 미술 ‘찾아가는 전시’

예술감독 정재호

협력큐레이터 전수연

주최·주관 서울문화재단

발행 조선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시민문화본부 총괄 오진이(시민문화본부장)

사업 총괄 백승우(공공예술센터 팀장)

사업 기획·운영 김효진(공공예술센터)

사업 운영보조 유민성(공공예술센터)

협력 서울도서관, 롯데백화점, 율현초등학교, 상현중학교, 세운상가, 시민청, 서울메트로  
재능기부 캘리그래퍼 강병인(로고디자인), 비안디자인 대표 안경두(전시프레임 디자인)

편집 전수연

디자인 이수진

인쇄 디티씨커뮤니케이션

발행일 2015. 09. 19

발행처 서울문화재단(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시민권자와  
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